국내외서 비난받는 아베

metro

박주영 FC서울 복귀

워킹맘에 사랑과 평화

여성가족부 공동기획 〈가정있는 직장〉 ③ 아모레퍼시픽

자율출퇴근제 등 도입 육아고민 제로화 앞장

이런 시급 7730000원

시중은행 사외이사 우주최고 무노동 '알바'

포스코 마그네슘판재 포르쉐에 첫 적용

"민간영역으로 김영란법 확대해야"

김영란 "언론·사립학교 포함 위헌 아니다 … 이해충돌방지 규정 제외로 반쪽법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금지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의 생각을 간추리자면 김영란법은 위헌은커녕 반쪽자리 법안에 그쳤다는 평가다. 김 전 위원장은 오히려 김영란법을 민간 영역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 "언론사·사립학교 적용 위헌 아니다"

김 전 위원장은 통과된 법의 적용대상이 공직자 외 언론사와 사립학교 직원 등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의 부패 문제의 혁신을 위해선 가장 먼저 공직분야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민간 분야의 부패정도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공직분야의 변화를 추진하고 그 다음 단계로 민간 분야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자 부분이 2년 넘게 공론화과정을 거친데 비해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범위와 속도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확대된 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헌법의 평등권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특히 강한 분야에 확대를 시도한 것이어서 평등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과잉입법과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69.8% 지지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들어 반박했다.

◆ "이해충돌방지규정 제외로 반쪽법안 그쳐"

김 전 위원장의 원안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청탁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가 제외됐다.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이해충돌조항은 반부패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함께 시행돼야할 것임에도 일부만 통과됐다"며 "가장 비중이 큰 이해충돌 조항이 빠진 것은 반쪽 법안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형이 판사인데 동생이 그 재판정에서 변호사로 재판하게 되는 경우 그런 걸 피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있다"며 이해충돌 조항은 행정에서 같은 취지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했다.

◆ 직무관련성 요구 조항에는 "의문"

원안에서는 100만원 초과 이하를 불문하고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다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은 100만원 초과 수수시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지 않고 100만원이하에만 직무관련성을 요구한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명백히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를 김영란법에 의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겠다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선출직 공직자 브로커화 우려"

원안에서는 없던 내용으로, 통과된 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은 예외로 규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이권 및 인사청탁 등의 부정청탁이 포함될 수 있어 선출직 공무원들의 브로커화 현상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앞으로 해석상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자신이 최초 발의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 "대통령 자녀·형님 비리 되새겨야"

원안에서는 가족의 개념을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했다. 하지만 통과된 법은 배우자로만 한정지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들의 자녀들·형님들이 문제되었던 사례를 돌아커보면 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또 원안에서는 가족 금품수수 시에도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신고 대상으로 하였으나 통과된 법에서는 가족 금품 수수시에는 직무관련성을 요구하여 범위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한용수기자 jsyons@metroseoul.co.kr

'멕시코 판 봉이 김선달'?

metro Mexico

수자원 민영화법 논란 거세

멕시코 의회가 수자원 법안 처리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법안의 부작용과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졌다.

9일 메트로 멕시코에 따르면 멕시코 하원의 수자원 위생 위원회와 수자원 위원회는 수자원 민영화를 위한 일반수자원법을 통과시켜 본 회의로 상정할 것임을 밝혔다. 여당인 제도혁명당을 비롯해 국민행동당과 녹색당까지 가세하면서 법안의 위원회 통과는 손쉽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민주혁명당과 시민운동당·재생운동당 등 일부 야당은 법안심의 연기를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위원회 심의를 보이콧하면서 반대를 감행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국가의 자산으로 헌법상 규정 되어있는 물을 사기업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반대로 법안 통과를 주장하는 진영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수자원 접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는 침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안 통과는 녹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엔리케 페니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시 기업들이 수백만달러 규모의 사업 수주권을 획득하게 될 것이란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27조 국가의 수자원에 대한 권리의 침해 여부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어도 헌법이 개정되거나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야당과 반대 단체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한 추상적인 해명"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 영양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강경하게 나갈 뜻을 고수했다. /정리=문용현기자

마주앉은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대표(오른쪽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왼쪽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0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를 두고 최종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여야는 야당의 비공개 결과를 보고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불발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이달 중에 실질적인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청년 중동진출' 적극 지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을 계기로 고급 청년인력의 중동 진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10일 중동순방 브리핑을 통해 "보건의료, ICT(정보통신기술), 할랄식품(이슬람율법에서 금지되지 않은 식품),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을 마련한 만큼 이 분야에서 고급기술을 보유한 청년 인력의 활발한 중동국가 진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은 산업다각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리 청년인력은 성실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동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진출 인력에 대한 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체계화 대실화해 고급 청년인력의 중동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른 위해 外개부 등을 통한 국가별·분야별 맞춤형 정보제공, 청년인력 진출 홍보강화, 각 기관에 산재된 교육훈련시스템과 해외진출 지원사업 체계적 정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안 수석은 중동순방 성과와 관련해 "산업외교를 통한 대형프로젝트 수주 가능성과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한 1조원대 계약성사로 중소기업의 중동진출 발판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1대1 상담회에는 3억원 정도 비용이 들었으나 1조원대 계약이 성사됐다"며 "상담회는 경제성시를 이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bhsong@

한미관계
더 단단
같이 갑시다

'퇴원' 리퍼트대사 "한국에 애정 커져… 동네아저씨로 남을 것"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같이 갑시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는 1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리퍼트 대사는 피습사건 후 5일 만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퇴원했다. 기자회견은 퇴원에 앞서 열렸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다양한 표현을 동원해 한·미동맹 균열 가능성에 대한 한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는 "이번 (자신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한국에 대한 애정이 더 커졌고 미국과 한국의 갈라질 수 없는 고리에 대한 믿음도 굳건해졌다"며 "한·미관계 뒤에 있는 우리의 목적과 결의도 변치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임 대사가 그랬듯이 군사적 파트너십과 역동적 경제·정치 관계를 비롯해 양국 국민의 협력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국민들이 자신에게 붙여 준 '동네 아저씨', '세준이 아빠'라는 애칭을 한국어로 언급하면서 "한국민들이 불러주던 대로 나는 앞으로도 동네아저씨이자 세준이 아빠로 남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피습 사건을 저지른 김기종씨와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어서 언급을 하기가 어렵다"고 외교관 특유의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무부도 사건 발생 직후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한 이후 한국 측의 수사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김씨가 휘두른 흉기에 새끼손가락의 찰과상, 얼굴에 11cm 크기의 상처, 전완부 안쪽 관통상, 오른쪽 얼굴에 자상 등을 입었다. 이로 인해 얼굴을 80여 바늘을 꿰매고 왼쪽 팔 전완부에 신경 접합술을 받았다.

그는 몸 상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다"며 "사건 자체는 무서웠으나 걷고 이야기하고, 아기를 안아주고 아내를 포옹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많은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좋은 편"이라고 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유기준·유일호 청문회 통과

현역의원 불패 기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역의원인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역시 현역의원인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현역의원 인사청문회 무사 통과라는 기록이 이어지게 됐다.

국토위는 경과보고서에서 "국회의원과 민간활동을 통해 쌓은 식견은 이해와 경험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토교통 분야의 제반 현안에 적절히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다수 지적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할 경우 장관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해 국토부 주요 정책 수립·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위장전입과 주택 매매가격 축소 신고는 국무위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준법성에 못 미치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여야가 공통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를 향해 "서민주거안정, 수도권 규제 합리화 등 국토교통 분야에 산적한 현안을 조속히 숙지하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거복지 실현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송병형기자

독도 실시간 영상관 개관식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안내실에서 열린 KBS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 실시간 영상관 개관식에서 독도 모습이 영상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 추진 급물살

최경환 부총리, 이기권 장관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인상론 합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어 여야 원내대표까지 최저임금 인상을 재촉하고 나섰다. 최저임금 인상 추진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여야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창립 69주년 기념식 행사에 나란히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적극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에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겠다고 했다"며 "새누리당도 그동안의 보수적인 기조를 많이 바꿔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대해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보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최저임금을) 7% 인상했고 올해도 아마 7.8% 인상하면 6000원이 넘어간다"며 "박근혜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라갔는데 그 기조를 유지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6000원대를 당론으로 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직후에서 6000원대 인상이 당론이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 같은 유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다행히 유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다만 정부대기 기업 위주의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가 직접 나서 당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론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해 장관에게 전달하고 장관이 이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는다. 통상적인 고시 시점은 8월께다.

/송병형기자

"북한 5년내 핵무기 100개 보유 불가능"

북한이 5년 뒤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의 전문가가 반론을 제기했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안전조치 사무차장은 10일 방송인터뷰에서 "최악의 상황이라 해도 5년 뒤 핵무기 1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고 모든 제약을 고려할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초빙연구원은 지난달 "현재 추세로 보면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에 달하는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이에 대해 "핵 물질을 축적한다는 것과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실제로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많은 다른 변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플루토늄과 농축우라늄 생산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며 "1년에 3~4개 핵무기를 제조해 5년 뒤 2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예측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의 2010년 비밀 핵실험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로 핵실험을 했다 해도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실험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핵 역량 한계를 추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북한은 적어도 두세 차례 핵실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 없이도 핵 보유량을 계속 늘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윤정원기자 yoonsa@

부동산·안전·교통 한눈에 서울시 정책지도 나왔다

아파트 전 월세거래량이 많은 지역 등 서울 시민 생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가 나왔다.

서울시가 이같은 특징을 지닌 311가지 종류의 정책지도를 제작해 10일 홈페이지(gis.seoul.go.kr)에 공개했다.

정책지도는 시가 보유한 각종 기초 행정자료와 지리정보시스템을 결합한 공간정보 빅데이터다.

이번에 공개한 311개 정책지도는 안전·재난, 복지·주거, 경제·일자리, 환경·교통 등 4개 정책 목표와 15개 주제로 제작됐다.

주요 정책지도를 살펴보면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2년간 아파트 전세 거래는 교육환경이 좋은 것으로 알려진 강남 3구, 노원구, 양천구가 많았다. 월세 거래는 송파구 잠실, 강남구 역삼동, 삼성동, 개포동이 많았다.

자전거 주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시민은 한강, 중랑천, 안양천, 불광천, 탄천 등을 주로 이용했으며 평일 출근시간대 평균 이동거리는 약 11km, 휴일은 약 13km였다.

늦은 밤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돕는 여성안심지킴이집은 강남·강동구 등 16개 구 48개 동에 우선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정책지도 외에 지도 제작에 사용된 기초자료와 분석결과도 공개했다.

Real-estates·Safety·Transportation All in one Reveal of Seoul Policy Map

A map which can be used to check the areas, where the flow of lease and rent of apartments is constant in Seoul, is now available for everyone to use.

Seoul has revealed the "Policy Map" which has 311 kinds of helpful information for people to use through online at gis.seoul.go.kr.

This policy map is a combination of administration materials and geographic system which makes up a whole big information database.

311 policy maps that have been revealed to citizens are composed of 15 categories which are safety·disaster·welfare housing·economy·job·environment·transportation and etc.

As the increase of apartment lease price and the increase of rents, 3 regions with good education environment which are Kang-nam 3, Nowon and Yang Cheon district showed increase in lease for rents. Song pa, Jam sil, Gang nam-Yeok Sam, Samsung and Gae Po dong showed increas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bike path, the citizens used Han river, Jung Ryang stream, An Yang stream, Bul gwang stream, Tan stream pathways and their average traveling distance was 11kilometers on weekdays and 13 kilometers on weekends.

Safe-return centers for women who goes home late at night, are to be expanded to 16 districts and 48 areas including Kang nam and Gang Dong.

Not only did the city reveal the policy map, but also the gathered and analyzed data used to complete this map.

/해고리 번역·정리 Gina Kim(파고다 강사)

PAGODA

IS 내부 균열로 무너지나

외국인 우대·참수 방식에 이견…이탈자 속출

반인륜적인 테러로 악명높은 이슬람국가(IS)가 이탈자 속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S에서 이탈한 대원 4명과 IS 장악지역 주민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IS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선 외국인 전사와 시리아인 대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내부 분열을 촉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전사들은 월 800달러를 받고 전리품 배분에서도 우대받는다. 하지만 현지인 대원들의 월급은 절반밖에 되지 않고 전리품도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것만 가져간다.

게다가 외국인 전사들이 전장 투입을 꺼리고 교리 지도 업무 같은 손쉬운 일을 선호하다 보니 목숨을 걸고 전투에 참여하는 현지인 대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잔혹행위에 대한 이견도 갈수록 늘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요르단 조종사를 불태워 살해할 당시 IS 율법위원회에서는 전례가 없었다며 포로 교환이나 몸값 협상을 하자는 의견이 나와 갈등을 빚었다. 참수와 화형을 서슴지 않는 IS의 세력확장 방식 때문에 조직에 등을 돌리는 대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금고 털어 달아나는 조직원도

석유 판매와 약탈 등으로 하루 500만 달러나 되는 수입도 관리상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금고에서 수천 달러씩 훔쳐 도망가는 조직원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WSJ는 지적했다.

IS도 잔인한 방법으로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다.

WSJ은 "IS가 지난해 12월 조직의 잔혹 행위에 반대하는 이들을 쿠데타 세력으로 몰아 처형했다"며 "지난달에는 시리아 락까에서 IS 이탈을 시도하다 발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30~40명의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국명기자 kmlee@

美위스콘신 사흘째 흑인청년 사망 항의 시위 비무장 흑인 청년 토니 로빈슨(19)이 백인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한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9일(현지시간) 사흘째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시위에는 고교생들도 수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가세했다. /AP 연합뉴스

못마땅한 아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현지시간)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독일은 과거사를 직시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위치로 복귀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왼쪽)의 모습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AP 연합뉴스

국내외서 비난 받는 아베의 과거사 인식

무라야마 전 총리 "사죄 표현 계승하라"
메르켈 총리도 군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아베 신조 총리의 과거사 인식이 일본 언론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의 과거사 핵심 표현을 계승하라고 일갈했고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과거를 피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10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일본 패전일인 8월 15일 무렵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자신의 담화 핵심 표현을 계승하라고 촉구했다. 1995년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는 당시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이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식민지배와 침략', '통절한 반성',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의 사죄 문구가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표현으로 꼽힌다. 현재 아베 총리는 일본 국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핵심 표현을 이어받을 것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냐고 중국과 한국이 걱정하고 있다"며 "역사적 사실은 확실히 해야 한다.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해서 희석하면 세계의 불신을 산다.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 메르켈 "역사 문제 똑바로 하라" 일갈

한편 일본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역사 발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도쿄에서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와 면담한 자리에서 가쓰야 대표가 "종전 70년을 맞이하지만 중국, 한국과 화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자 "일본과 한국은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어 화해가 중요하다. 군위안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자신의 문제로서 과거와 마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상 과거와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메르켈 총리의 이같은 역사 발언을 두고 대부분의 일본 언론은 1면으로 비중있게 보도했다. 아사히 신문은 과거 총괄(정리)과 화해의 전제, 도쿄신문은 '화해하려면 역사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등 기사를 통해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과거사 인식을 촉구했다.

/장윤희기자 unique@

시급 773만원…고액보수 받는 은행 사외이사

우석형 신도리코 회장 가장 많은 임금받아…경영진 견제·감시 역할 소홀

우석형(사진) 신도리코 회장이 지난해 하나은행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시급 77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국내은행 90명의 사외이사들이 지난해 받은 보수는 35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사회에서 99% 이상 찬성표를 던져 사외이사들은 본연의 역할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은행연합회가 공시한 17개 국내은행의 90명 사외이사의 지난해 보수액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들 사외이사의 보수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하나은행 사외이사가 상위 10명 중 8명을 차지했다.

우석형 회장은 지난해 3월 퇴임할 때까지 3개월간 116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임기 내 열린 2회의 이사회와 이사회운영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등에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가 지난해 사외이사로 참석한 행사는 1시간 30분가량의 간담회가 유일해 시급으로 환산하면 773만원에 달한다.

이어 엄재호 하나은행 사외이사는 17.5시간 동안 활동하고 5300만원을 받아 시급 302만원을 기록했고, 김영기 이사는 24.6시간 활동해 6750만원을 보수로 챙겼다. 정영록 이사는 지난해 14.5시간 일해 3900만원을 받았다.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외환은행 사외이사 2명이 순위에 올랐다.

김주성 이사는 지난해 외환은행으로부터 665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사회와 소속 위원회에 14번만 참여해 회의당 475만원을 챙겼다.

천진석 이사도 22번 이사회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석하는 동안 5650만원을 받아 회의 당 256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반면 우리은행의 임성열 이사는 지난해 104.3시간을 일하고도 보수가 270만원에 불가해 시급으로 따지면 2만6000원에 불가했다.

그는 예금보험공사 직원(기획조정부장)으로, 우리은행은 예보 내규에 의거해 지난해 4월 29일부터는 임 사외이사에게 회의참가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대구은행의 어정도 이사도 63시간 동안 일하고도 427만원만 지급받았다. 시급으로 환산하면 6만8000원이다.

이들 90명의 사외이사는 지난해 평균 100.7시간 동안 일하면서 34조9952억원을 보수로 타갔다. 시급으로 계산하면 평균 68만5100이다.

하지만 이들은 지난해 사외이사 본연의 역할인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에는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3개 은행의 사외이사들이 반대해 부결된 이사회안건은 총 617건 중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건과 씨티은행의 기부금 집행건 등 2건에 그쳤다.

/김하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매입형 임대주택사업 잘보다 양?

정비사업해제구역 포함해 신청 '봇물'

서울시가 매입형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을 채우기 위해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으로까지 범위를 확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매입형 임대주택이란 서울시가 주택을 직접 매입해 저소득가구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하나로, 올 한해 다가구·다세대주택 1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주택 1차 공급은 3월 한 달간 주택 소유자에게 매도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친 뒤 4월께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 한 해 매입 목표는 1500호지만 실제 신규 공급은 1500호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이전에 매입 계약은 체결됐으나 입주민을 만나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 수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에 매입된 다가구·다세대주택은 2013년과 2014년 각각 1254호와 1610호로 목표였던 1500호에 간신히 미달된 바 있다. 접수된 물건 자체는 목표치를 넘겼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어진 건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시 측은 그 이유로 "시에서 매입하려는 가격과 집주인이 매도하려는 가격차가 큰 게 가장 큰 원인이지만 품질이 워낙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가격이 맞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이고 주택 품질을 꼼꼼히 따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가격과 품질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13년간 7327호의 다가구·다세대를 매입하는 데 그쳤다는 데 있다. 1년 평균 563호를 매입한 것으로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이 같은 실적을 의식한 듯 서울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그동안 매입을 자제했던 정비사업해제구역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시의 의도대로 10일 현재 접수된 다가구·다세대 매도 신청은 1500건을 넘었다. 이는 월를을 배제한 수량으로 모집 공고 1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성적이다.

시관계자는 "분양 시장이 살아나면서 시장 반응이 좋다고 들었다"며 "지난해에서 이월된 매입 목표 수량까지 더해 올해는 약 2000호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물량들이 어느 지역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해제구역에 대해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불량 주택이 많아 종전까지는 매입에서 배제했던 구역"이라고만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114 본부장은 "뉴타운 해제지역은 중심으로 길게는 30년 이상된 노후 빌라들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며 "이런 물량을 매입했다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수리까지 다 해서 내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찾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정기자 kimc0604@

생보재단, 성북구 정릉동에 국공립 생명숲어린이집 개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하 생보재단)은 10일 서울 성북구 정릉4동에서 성북생명숲어린이집을 개원했다고 밝혔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11명의 교직원이 71명의 어린이들을 보육할 예정이다. (가운데 왼쪽부터) 이시형 생보재단 이사장과 유승희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제공

하나대투증권 '행복금융 스토리3'

하나대투증권이 저금리, 저성장 국기간의 디커플링 시장에서 요람에서 노후까지 행복한 자산관리를 위한 '행복금융 스토리3' 상품을 추천했다.

단기 성과와 개별 상품추천에서 벗어나 고객의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중심으로 고객이 행복한 생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상품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행복금융 스토리3'는 고객의 생애 자산관리를 위한 세가지 투자상품을 제시하고 있다.

'스토리1'은 고객의 소득을 적립식으로 투자 하는 것. 적립식 투자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금융자산을 모아 노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실제로 선진시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자본을 축적한 골든에이지가 형성될 정도로 활성화돼 있다. 또 시장에 변동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낮은 가격으로 추가 투자를 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스토리2'는 글로벌 자산에 분산 투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국내에 집중된 투자방식이 아닌 글로벌 분산투자를 하는 경우 다양한 투자자산을 활용해 기대수익을 높이고 더욱 안정적인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

실례를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지수는 5년간 131.3%의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수익률은 12.7%에 그쳤다. 선진국 비중이 높은 MSCI 글로벌 지수의 동기간 수익률은 0.7%, 46.3%로 수익률이 국내시장과 상이했다. 만약 두 지수로 1대 1 자산배분을 했다면 수익률은 66%, 30%이다.

'스토리3'은 연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다. 연금은 재테크와 소득공제, 금융소득세를 활용한 세테크를 동시에 할 수 있고 목돈 마련과 연금수령을 통해 노후도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실질적으로 연금의 세액공제율은 연 13.2%로 현재 2.6%인 기준금리와 비교해봐도 연금상품은 필수적인 투자상품인 것이다. 또 연금은 글로벌 투자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대체상품 등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어 노후를 대비하는 안정적인 투자처다.

하나대투증권은 '행복금융 스토리3'에 맞는 상품을 추천하고 있다. 적립식 투자 상품으로 '브리스톤 장기 고배당 펀드', '에셋플러스 코리아리치 투게더 펀드', '마이다스 미안 중소형주 펀드' 등 추천했고 글로벌 투자를 위해 '하나 중국 1등주 랩'과 '하나 중국본토 1등주 랩', '하나 글로벌 고배당 1등주 랩', '선진글로벌 Leaders & ETF 랩' 등의 글로벌 랩 시리즈를 추천했다.

/김민지기자

이번엔 '특판채권'이다.

대신증권 특판 채권
시장금리 사상최저 시대
한국은행이 지급보증하는 통안채권을 특별판매합니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드리는 대신증권 특판 채권으로 옮기세요.
대신이니까, 크게 드립니다.
채권
특판
RP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중위험·중수익' ELS 인기 계속될 듯

"간단한 상품구조 투자자 사로잡아"

저금리 시대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자리 잡은 주가연계증권(ELS)의 돌풍이 올해도 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주식형 펀드를 제친 ELS가 올해도 주식형 펀드보다 5배 이상 성장하면서 주도권을 굳히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중위험 중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ELS는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면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지만, 주가가 범위를 벗어나 폭락하면 원금을 잃을 수 있는 상품이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ELS와 유사 상품인 파생결합증권(DLS)의 발행잔액은 지난 5일 기준 88조4353억원으로, 국내와 해외 주식형펀드 설정액 80조508억원을 8조3845억원, 10.47% 웃돌았다.

ELS·DLS발행규모가 올해 들어 4조2145억원(5.00%) 성장하는 동안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7489억원(0.94%) 증가에 그쳐 차이가 더 벌어졌다. ELS·DLS 발행잔액은 지난 2013년 말에만 해도 63조1802억원으로, 주식형 펀드 설정액 85조4765억원에 22조원 이상 뒤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ELS·DLS 발행잔액이 33.30% 급성장하는 동안 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오히려 7.23% 쪼그라들었다. 그 결과 지난해말 ELS·DLS 발행잔액은 84조2208억원으로 주식형 펀드 설정액 79조3019억원을 4조9189억원, 6.20% 앞서 중위험·중수익 시장의 최강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기초자산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미리 정해진 수익률을 제공하는 ELS의 간단한 상품 구조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펀드는 사전에 일정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이 ELS와 경쟁에서 약점으로 작용한다. 특히 국내 증시가 수년간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해외주식형 펀드도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손실의 후유증에 시달리면서 주식형 펀드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ELS가 원금 손실 위험성이 뚜렷한데도 판매사들의 '밀어주기'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이후 현대중공업, OCI 등 종목 주가와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이들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종목형 ELS·DLS들이 무더기로 원금 손실 위험에 처한 바 있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ELS 발행이 너무 많아 시장 과열 경쟁이나 혼탁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지만 기우일 뿐이다"고 말했다. 그는 "전체 ELS 발행 규모 가운데 공모형 원금비보장형 ELS 규모가 많이 늘어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legible]기자

대림산업 'e편한세상 수지' 분양

3월 중순께 견본주택 열어

대림산업이 3월 올해 첫 분양에 돌입한다.

대림산업은 3월 중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서 'e편한세상 수지'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수지구 풍덕천동 574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수지는 총 1237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하 2층~지상 30층, 10개동으로 구성되며 전용면적은 84~103㎡다. 전용면적 별 분양 가구수는 ▲84㎡ 1177가구 ▲98㎡ 54가구 ▲101㎡ 5가구 ▲103㎡ 1가구로 구성됐다.

사업지가 위치한 풍덕천동은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수지구는 신분당선 개통 호재 등으로 집값이 5.93% 상승하며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조사됐다.

e편한세상 수지에는 특허 받은 단열 기술이 적용된다. 기존 아파트는 방과 방, 방과 거실의 벽이 이어지는 부분에 단열이 끊겨 냉기가 유입되거나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던 반면 이번 아파트에는 집안의 모든 면에 끊김 없는 단열 설계를 적용해 열 손실을 최소화했다.

모든 창호에는 이중창 시스템이 적용되며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 가량 두꺼운 60㎜ 바닥차음재를 설치했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수지에 자체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대쉬(DASH)를 처음으로 적용한다. 대쉬는 월패드의 모든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으로 옮겨 담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만으로 집을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가스, 조명, 난방을 제어하고 에너지 사용량 확인, 방문자 실시간 확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파트 입구와 세대 현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문객을 확인하며 대화도 할 수 있다.

e편한세상 수지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 성복역 인근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다. 신분당선 연장선은 분당 정자~용인 수지~광교신도시를 잇는 구간으로 2016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 센터, 실내 골프 연습장, 북 라운지 카페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커뮤니티 시설 옥상에는 정원이 조성돼 있어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아파트 대비해 4배 가량 선명한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도 도입했다.

대림산업은 견본주택 오픈 전 분양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현장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장 홍보관은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30-3번지에 있다. 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843번지에 있고 입주는 2017년 8월 예정이다.

/[illegible]기자

신한금융투자
한층 안정적이다!
첫스텝 80시리즈 ELS
80%대 첫 조기상환 배리어
안정적인 노낙인 구조 설계

신한금융투자, 첫스텝80 시리즈 ELS 등 7종 공모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3일까지 연 6%의 수익을 추구하는 85배리어 ELS를 포함한 7종의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다. 이번에 판매되는 'ELS10334호'는 조기상환형 스텝다운 구조에 3년만기 노낙인(No Knock-in) 구조이며 KOSPI200, HSCEI, EUROSTOXX50을 기초자산으로 한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고, 신한금융투자 지점 및 홈페이지(www.shinhaninvest.com)에서 가입할 수 있다. /신한금융투자 제공

증권가, 美 6월 금리인상 놓고 '갑론을박'

코스피 흔들리고 미국 시장 예상치 크게 웃돌아

국내 증권가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미국 6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코스피가 미국 금리 조기 인상 조짐에 흔들린데다 2월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다.

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2월 실업률은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5.5%였다. 이는 지난 2008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지난달 비농업부문의 일자리가 29만5000개 늘어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24만개)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다. 이는 미국의 6월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전문가마다 엇갈리게 된 요인이기도 하다. 2월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보다 0.1% 증가(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해 시장 예상치(전월 대비 0.2% 증가)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채현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고용의 양적으로는 회복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이 직면한 재정·통화 강세 등으로 업종별 고용이 균형 있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업률이 5.5%까지 떨어졌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낮고, 임금 상승률이 빠르게 증가하지 못했다는 점은 노동시장의 유휴자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허진욱 삼성증권 연구원은 2월 임금 상승률 부진을 1월에 대한 기저효과로 봤다. 그는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인내심' 문구가 삭제되고, 오는 6월에 첫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며 "특히 3월 경제지표가 발표되는 4월 이후부터 금융시장의 컨센서스에 미국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본격 반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곽현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리 인상으로 달러화 지수가 상승한다는 말은 미국 가계의 구매 여력이 확대됨을 뜻한다"며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면 한국 기업들의 미 수출 증가율이 양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illegible]기자

모바일 결제시장 핵심 '보안'

업계선 보안·시스템 구축 '시기상조'··· 애플페이 국내서 사용하기 힘들어

글로벌 IT 시장을 이끌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4월 갤럭시S6와 애플워치 출격을 앞두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핵심은 모바일 결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아직 보안 문제와 시스템구축의 문제로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NH투자증권은 10일 애플이 새롭게 선보인 '애플워치'에 대해 기대보다 다소 실망스러웠다며 웨어러블(착용가능) 기기에 대중화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혜용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9월 처음 공개했던 애플워치가 기존의 스마트워치와 차별화돼 어떻게 사용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것인지 기대됐다"며 "하지만 발표된 애플워치는 크게 새로워진 내가 없었고, 가격도 예상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마트폰이 대신하지 못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없고, 기존 제품들과 크게 차별화되지도 않는다"며 "다소 실망스러운 발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애플은 샌프란시스코 예바부에나 센터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고 애플워치를 발표했다. 애플워치는 애플페이, 전화통화, SNS, 스케줄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디자인은 기존에 공개된 것과 동일하다. 애플워치 스포츠(349~399달러), 애플워치(549~1099달러), 애플워치 에디션(1만 달러 이상) 세 가지 버전으로 오는 4월24일부터 중국, 미국 등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또 애플워치에 적용된 애플페이도 국내 시장에서는 사용하기 힘들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NFC 결제 단말기 보급률은 5% 미만 수준이다.

4월 10일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 '갤럭시S6'도 스마트폰 전자결제 환경에 큰 변화를 불러오기는 이르다. 제품 자체의 디자인과 우수성으로 시장에 돌풍을 일으키겠지만 삼성페이는 현재로썬 급속도로 확대되는데 까지는 인프라 구축 등이 수반되야 할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우선 보안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삼성페이는 결제할 때 카드번호를 전송하는 게 아니라 일회용 정보를 보내는 '토큰' 기술이 적용됐다. 기존 복제가 쉬운 마그네틱 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금융업계 IT보안팀 관계자는 "애플페이 역시 토큰 기술을 적용했지만 최근 사고율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면 빠르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구본무 LG그룹 회장 고객 가치 강조

"고객 원하는 부분에서 혁신 이끌어야"

구본무(사진) LG그룹 회장이 변화가 빠른 시장 선점을 위해 '고객가치'를 키워드로 내세웠다.

단순히 기업간 기술 경쟁을 펼치기 보다 고객이 원하는 부분에서 혁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회장은 10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열린 3월 임원 세미나에서 "변화 현상만을 뒤쫓기보다는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고객에서 출발한 혁신만이 고객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남들이 보지 않는 부분까지 감동을 주는 세밀함과 철저한 실행력으로 최고의 고객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기업 간 경쟁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고객과 함께 시장을 만들자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쟁 업체보다 앞선 기술이라고 할지라도 시장 트렌드와 가격 등 다양한 부분에서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오히려 골칫거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구 회장은 "올해는 모든 중장기적으로 계획한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시장 선도를 위한 링브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임원세미나에는 구 회장을 비롯해 강유식 LG경영개발원 부회장,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등 최고경영진과 임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양성운기자

삼성, 185개 중학교서 '드림클래스' 개강

중학생 8000명 대상 주중·주말 학습 지도

지난 9일 경기도 안산시 본오중학교에서 '2015 드림클래스 주중교실'을 개강하고 대학생 강사의 지도아래 중학생들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삼성사회봉사단 제공

삼성은 9일부터 전국 185개 중학교에서 중학생 8000명을 대상으로 '2015 드림클래스 주중·주말교실'을 개강한다고 10일 밝혔다.

삼성 드림클래스는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2년 3월부터 시작한 교육 사회공헌 사업이다. 배움의 의지가 강한 저소득 가정의 중학생들에게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고 이들을 가르치는 대학생들에게는 리더십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장학금도 지급한다. 삼성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중학생 3만1542명, 대학생 8807명을 지원했다.

올해 주중교실에는 172개 학교 중학생 7438명, 주말교실에는 13개 학교 중학생 562명이 참여한다. 학생들은 10명이 한 반으로 편성돼 대학생 강사로부터 학습지도를 받게 된다.

강사로 참여하는 대학생 1850명은 3월부터 각 중학교에 배치되어 방과 후 영어와 수학 학습지도와 함께 멘토링을 한다. 이 대학생들은 지난 2월 10일부터 13일까지 중학교 배치에 앞서 삼성 인력개발원에서 개발한 매너와 에티켓 교육을 통해 기본 소양을 습득하고, 강사들 간 수업 운영 노하우와 우수 사례를 서로 공유하는 등 강사 활동에 필요한 연수를 받았다.

지금까지 드림클래스에 참여한 중학생 가운데 280명이 영재고(1명), 과학고(19명), 외국어고(66명), 국제고(5명), 자사고(81명), 마이스터고(108명)에 진학했다.

한편 삼성은 주중·주말 수업에 어려운 읍·면·도서지역 학생을 위해서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 대학 캠퍼스에서 합숙하는 방학캠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방학캠프를 통해 중학생 3600명, 대학생 1212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혁인기자 hjune0404@

LG전자, 포터블 스피커 론칭 이벤트

화이트데이 맞아 1+1 경품 증정

LG전자는 화이트데이를 맞아 오픈마켓 G마켓과 함께 17일까지 'LG 포터블 스피커 론칭 이벤트'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G마켓에서 LG 포터블 스피커 구매한 고객들에게 같은 제품을 하나 더 증정하는 '1+1' 혜택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G마켓을 통해 LG 포터블 스피커 구매 후 30자 이상의 구매 상품평을 남기면 된다. LG전자는 추첨을 통해 우수 상품평 작성자 20명에게 LG 포터블 스피커를 한 대 더 증정한다.

또 G마켓에서 LG 포터블 스피커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도 증정한다. 구매 고객 전원에게는 네이버 뮤직 1개월 쿠폰을 제공하며 선착순 200명에게는 범퍼 케이스를 증정한다. 스피커 2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컬러링 북과 색연필을 추가 증정하는 커플 패키지를 제공한다. 한편 LG 포터블 스피커는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IT기기와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음질 사운드를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스피커이다.

이 제품은 20와트(W)의 고출력 스테레오 사운드와 독자적인 'LG 오토 사운드 엔진' 음향 기술로 풍부하고 선명한 음색을 제공하며 스피커 두 대를 연결할 시에는 입체감이 살아있는 생생한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 IT기기를 최대 3대까지 연결해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등 무선 연결 기능을 강화해 편의성을 높였으며 작은 크기와 높은 배터리 효율로 휴대성도 강화했다.

/정혁인기자

현대중공업, 국내 최초 10.5세대 LCD로봇 개발

현대중공업은 10.5세대 초대형 LCD(Liquid Crystal Display, 액정표시장치)글라스 운송용 로봇 개발에 성공했다고 10일 밝혔다.

LCD운송로봇은 LCD패널 생산과정에서 LCD글라스 이송공정에 사용되는 로봇이다. 현대중공업은 개발에 성공한 10.5세대 LCD(3,370mm x 2,940mm)는 기존 주력 LCD인 8세대(2,500mm x 2,200mm)에 비해 약 1.3배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된 모델은 6.9m 높이까지 작업이 가능해 가동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또 정밀한 모터제어 기술을 적용해 기존 8세대 모델에 비해 작업속도가 10%가량 빨라졌다. 경량화·고강성 구조로 진동이 줄어들어 더 정밀한 작업도 할 수 있다. 미세한 먼지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 있는 LCD 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밀폐구조로 설계, 구동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불량률을 최소화했다.

이 로봇은 최근 중국 최대 LCD 패널 생산업체를 초청해 실시한 시연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LCD 생산업체가 10.5세대 LCD 생산라인을 신설하는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을 시작으로 연간 100대 이상 판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성기자 10sesung@

LG전자, 광파오븐으로 치킨 만들기 이벤트

LG전자는 오는 31일까지 'DIOS 광파오븐'을 이용한 '홈메이드 치킨 만들기 이벤트'를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 이벤트는 DIOS광파오븐 공식 커뮤니티 '오븐숍더레시피'에서 진행된다.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 요리가 저절로 '이벤트 게시판'에 광파오븐을 사용한 ▲요리과정 사진 ▲요리 완성 사진 ▲요리 팁 등을 새 글로 작성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LG전자는 위의 조건을 충족한 모든 참가자에게 코렉스 오븐글라스 2종 4P를 선물한다. 이와 함께 우수인원으로 선발된 2명에게는 테팔 엑스퍼 조리도구 3종 세트를 증정할 계획이다.

한편 LG DIOS 광파오븐은 국내 오븐 최초로 근거리무선통신(NFC), 무선랜(Wi-Fi) 기능을 채용해 레시피 전송, 조리시간, 온도 등을 스마트폰으로 자동 세팅할 수 있는 제품이다. 가전제품과 채팅할 수 있는 '홈챗' 기능을 통해 오븐 상태 모니터링, 원격제어와 콘텐츠 공유도 가능하다.

/정혁인기자

효율성 높인 삼성 에어컨…기술력 뽐낸 LG 제품

르포

국제냉난방공조전 가보니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공조전시회 '2015 한국국제냉난방공조전'이 10일 막을 올렸다. 전시장은 첫째날이라서 그런지 오전부터 중국·인도·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찾아온 바이어들로 북적였다. 삼성전자·LG전자·캐리어에어컨 등 국내 냉난방공조시장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보인 다양한 에너지 솔루션 제품을 살펴보기 위해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바이어들의 눈빛은 빛났다. 하나라도 제품을 더 살펴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이 국내 제품의 인지도가 글로벌 톱 수준으로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전자는 실제 사용환경과 비슷하게 조성된 공간에 제품을 전시해 관람객의 이해를 도왔다. 전면에 내세운 주력 제품은 전기로 압축기를 구동시키는 EHP(Electronic Heat Pump 공기열원) 시스템에어컨 중 세계 최대인 75.4kW(26마력)의 용량을 갖춘 'DVM S'다. 이 제품은 기존보다 실외기 설치 공간은 약 40%, 하중은 약 30% 줄여 건축물의 공간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옥상을 정원으로 활용하는 건물에서 이 제품 실외기를 설치하더라도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예시 모형으로 전시해 바이어들의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 부스 입구에 전시된 EHP 시스템에어컨 DVM S의 모습 (좌) 캐리어에어컨 부스 입구에 전시된 HSES 구성도 (우)

특히 공기 저항 감소 능력으로 정부의 신기술 인증인 NET 마크를 획득한 팬 유로 기술과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스크롤 컴프레서 등을 통해 국내 최고 효율인 9.23을 달성했다. 중국 IPLV 8.2, 북미 IEER 38.2 등으로 해외에서도 최고 효율을 입증했다.

LG전자 부스에서는 현대자동차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력을 높인 시스템에어컨 제품이 바이어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부스 입구부터 현대자의 엔진을 탑재해 성능을 향상시킨 30마력의 가스 냉난방기 '가스히트펌프 슈퍼 2'를 살펴보는 관람객들은 글로벌 전자회사와 자동차 회사의 협업제품을 관심있게 지켜봤다. 새로 탑재된 현대차의 엔진은 기존 LSM의 트랙터 엔진보다 배기 용량은 늘었으며 소음진동은 25HP 기준 60dB 수준으로 개선됐다. 엔진 제어 속도를 기존 대비 4배 향상시켰으며 부품 수명도 강화됐다.

또 LG전자가 선보인 흡수식 칠러의 전열관에는 포스코와 공동으로 개발한 흡수식 칠러 전용 스테인레스 소재가 사용됐다. 이 소재는 기존 소재보다 부식 속도가 느려 내식성이 강하면서 무게는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LG전자는 국내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에어컨 2015년형 '멀티브이 슈퍼4(Multi V Super 4)'도 선보였다.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외부에서도 이 제품을 작동시키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다. 실내·외 온도에 맞춰 냉매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에 사용 전력도 절감 가능하다.

캐리어에어컨은 빌딩산업공조시스템(Building & Industrial System-BIS) 전문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내세웠다. 캐리어의 BIS의 휴먼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Human Smart Energy Solutions·HSES)은 인간 중심의 환경을 구현하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다. 오티스 엘리베이터와 함께 HSES 구성도와 설치사례를 전시했다.

이를 통해 냉난방과 공기·엘리베이터·보안·조명 등 빌딩 내 모든 환경에 에너지 고효율을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캐리어에어컨은 HSES를 향후 다양한 제품라인에 도입해 극대화된 에너지 효율성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혜은기자 hyem1004@metroseoul.co.kr

청소년 전용 팅 안심옵션 출시

SK텔레콤은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도 저렴하게 데이터를 추가로 쓸 수 있는 청소년 데이터 안심형 상품 '팅 안심옵션'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상품은 LTE T끼리 팅, LTE 팅 등 청소년 전용 LTE 요금제를 쓰는 고객이 가입할 수 있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요금은 월 5000원(부가세 별도)이다.

회사 측은 "데이터 요금 과다 발생을 예방하는 청소년 요금제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웹서핑·메신저 등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데이터 이용 패턴을 고려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상품 출시 기념으로 7월 말까지 가입 고객에 한해 6개월간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기존 대비 1.5배로 확대한다. 또 8월 말까지 가입하면 이용요금을 월 3500원으로 할인해준다.

/양성운기자

SK텔레콤, 국내 통신·브랜드·가치 1위

SK텔레콤이 세계 최대 브랜드 컨설팅 회사 인터브랜드가 조사한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Best Korea Brands) 2015'에서 서비스 업종 중 1위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2013년 인터브랜드가 처음 조사를 시행한 이래 3년 연속 서비스 업종 1위 브랜드로 선정된 것이다.

인터브랜드가 산정한 'SK텔레콤'의 브랜드 가치는 4조5357억원이다. 2013년 4조2849억원, 지난해 4조4521억원 대비 각각 5.9%, 1.9%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포춘이 선정한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SK텔레콤은 통신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업종 브랜드에서는 유일하게 톱5 브랜드에 선정됐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공격적인 LTE 망 투자와 가입자 유치 마케팅으로 브랜드 순위가 41위에서 36위로 크게 올랐다. KT는 지난해 대비 1단계 하락한 12위였다.

이번 '베스트 코리아 브랜드 2015'는 '재무 예측', '역할 지수 계산', '브랜드 강도 평가' 등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한 인터브랜드의 자체 브랜드 가치 평가 모델을 기준으로 선정됐다.

인터브랜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브랜드 컨설팅 기업으로 브랜드 가치 산정의 국제 표준인 ISO 10668을 업계 최초로 인증 받는 등 브랜드 가치 평가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양성운기자 ysunan@

KT, 올레 '기가 서비스'로 국내 1등 브랜드 자리매김

KT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1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에서 대표 기가(GiGA) 서비스인 '올레 기가 인터넷'과 '올레 기가 UHD tv'가 각각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TV(IPTV) 부문 1위를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올레 인터넷전화'와 국제전화 '001'도 각각 인터넷전화와 국제전화 부문 1위에 올라 KT의 통신 브랜드가 총 4관왕을 수상했다.

올해로 17회를 맞는 K-BPI는 고객들이 국내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지도와 이미지, 선호도 등을 일대일 대면 조사를 통해 국내 200여개 부문별 최고 브랜드를 선정한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따르면 KT는 △초고속인터넷 △IPTV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부문에서 각각 15년, 6년, 2년, 3년 연속 1위로 선정됐으며 KT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통신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KT 측은 이번 수상이 최근 GiGA 서비스의 혜택을 일상 속 에피소드로 구성해 고객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GiGA 캠페인의 성공이 가져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양성운기자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5 개최

국내 최대의 상금 규모의 고등학생 대상 과학 경진대회

한화그룹(회장 김승연)이 미래의 노벨상 후보를 육성하기 위한 과학 경진대회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 2015'를 개최한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단순히 과학영재 발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구와 인류 현안에 대한 청소년의 과학적 이해를 높인다는 공익적 취지에 따라 '지구를 살려라(Saving the Earth)' 일관된 주제를 5년째 지속하고 있다. 다른 청소년 과학경진대회와 달리 연구결과에 대한 이론적 완성도 보다 순수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과학탐구 과정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한화 사이언스 챌린지'는 대상 수상자에게 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총 해외탐방을 포함한 총상금 규모만 3억 5000만원이 넘는다. 매회 참가팀이 평균 730개, 지난 4년간 누적 참가 학생 수만 6300명에 달할 정도로 국내 최대 과학 경진대회를 자랑한다.

/최종훈기자 hun@

효성, 전북에 창조경제 꽃

'창조경제지원단' 출범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문을 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채찍을 받았다. 효성은 '창조경제지원단'을 출범하고 전북 창조경제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10일 전했다.

효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직접 창조경제지원단 지원단장을 맡아 조직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과감한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했다. 이 부회장은 "효성과 전라북도가 함께 육성해 나갈 탄소산업은 '미래산업의 쌀'로 불릴 만큼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며 "전라북도를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창조경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단장으로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전문가인 전략본부 가종현 전무가 선임됐다. 가 전무는 SK텔레콤 및 벤처기업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글로벌 현장 경험도 두루 갖춰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뒷받침하는데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효성 측은 앞으로 '창조경제지원단'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다각도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던 문화, 농생명 등 전통 산업 분야의 경쟁력에 첨단 소재산업인 탄소섬유 산업을 접목, 전북 경제활성화의 중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창조경제지원단은 ▲창조경제 활성화 지원(탄소 수요 확대, 농산물 마케팅 지원, 게임산업 육성 단지 사업화 등)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 경영 멘토링, 신학협동을 통한 탄소 전문가 육성,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펀드관리 ▲대외홍보 창업공모전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각 분야별로 효성의 전략본부 무역PG, 정보통신PG, 기술원 등의 각 사업본부에서 선문적인 역량을 갖춘 담당 임원을 책임자로 복정해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2013년 5월 전주시에 탄소섬유 공장을 준공하며 전북과 인연을 맺은 효성은 2014년 11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소했다. 전주공장 내 부지를 무상 제공해 '탄소특화 창업보육센터'를 건립 중이다.

/양소리기자 [email]

효성은 '창조경제지원단'을 출범하고 전북 지소층적 활성화의 구심점으로 삼을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효성의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커팅식을 하고 있다. /효성 제공

소형승용차 브랜드파워 기아 모닝 4년연속 1위

우수한 상품성과 합리적 가격으로 인기

대한민국 대표 소형승용차는 역시 '모닝'이었다.

기아자동차(주)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선정하는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Korea Brand Power Index)' 조사에서 모닝이 소형승용차 부문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모닝은 지난 201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대한민국 대표 소형차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 1999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하는 국내 최초의 브랜드 평가 지수로, 조사방식의 신뢰성과 대표성에 있어 국내 최고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표본 소비자들과의 1:1 개별 면접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와 충성도를 조사한 후 각각을 지수화 해 결과를 산정했다.

기아자 모닝은 브랜드 인지도·충성도 등 전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하며 해당 부문 1위에 올라 경쟁자들을 제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소형승용차임을 입증했다.

기아자 관계자는 "이번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수상으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지속된 모닝의 인기와 높은 인지도, 뛰어난 충성도를 다시 한번 증명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만족과 함께 고객들이 더 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브랜드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터보 엔진 장착 상품성 강화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더 뉴 모닝'은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을 대폭 강화하고 디자인을 고급화하면서도 가격인상을 최소화 한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김학준기자 [email]

현대차, 전차종 할부금리 평균 1%p 인하

현대자동차(주)는 이번 달부터 전차종 할부 기준금리를 평균 1% 포인트 낮춘다.

원리금 균등납부 방식으로 현대차를 구입하는 고객이 선수금 15% 이상을 납부할 경우 기존 5.9%(12·24·36개월) 금리가 4.9%로, 6.9%(48개월)는 5.9%로, 7.5%(60개월)는 5.9%로 평균 약 1%P 할부금리가 인하된다. 3월 2일부터 구매한 고객에게 소급 적용된다.

이는 할부원금 1000만원 당 약 15만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다(36개월 할부 기준). 차종별로 엑센트(할부원금 평균 1150만원)의 경우 약 18만원, i30(할부원금 1450만원)는 약 22만원, 그랜저/싼타페(할부원금 2200만원)는 약 34만원, 에쿠스(할부원금 5500만원)의 경우 약 85만원의 구입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3월 동안 쏘나타·투싼ix 2.9%, 제네시스 3.9%의 저금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아반떼의 경우 2.9% 저금리에 더해 80만원 할인 혜택도 준다.

/김학준기자 [email]

친환경·시장혁신 분야 한국타이어 1위 선정

글로벌 선도 타이어 기업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의 상품 '앙프랑 에코(enfren eco)'와 '벤투스 S1 에보2(Ventus S1 evo2)'가 한국능률협회인증원(KMAR)에서 주관하는 '2015 그린스타-이노스타 인증'의 승용차용 타이어 부문에서 각각 1위에 선정됐다.

한국타이어는 혁신적인 제품 콘셉트와 친환경 성취도가 높은 상품을 인증하는 그린스타-이노스타에 8년 연속 1위로 선정되어 친환경 연구개발 투자를 선도하고,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Top Tier의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다.

'그린스타'로 인증된 '앙프랑 에코'는 한국과 일본에서 높은 연비 효율을 인정 받은 한국타이어의 대표적인 친환경 프리미엄 타이어이다. 또한 초고성능 타이어(UHPT, Ultra High Performance Tire) 5개 규격 포함 총 22개 규격으로 출시되어 다양한 차종에 적용 가능하며, 수명 성능과 정숙성에 더해 높은 연비까지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이노스타'로 인증된 '벤투스 S1 에보2'는 DTM(독일투어링카마스터즈)에서 검증된 기술로 만든 초고성능 타이어다. 고속 드라이빙을 할 때 섬세한 조종안정성과 코너링 성능을 제공하는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기술을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친환경 성능까지 갖춰 '이노스타 인증'을 받았다.

/김학준기자

포스코 마그네슘 판재, 포르셰 스포츠카 지붕에 적용

포스코의 마그네슘 판재가 세계 최초로 상용차의 외장재로 사용됐다.

포스코는 자사의 마그네슘 판재가 올해 제네바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포르셰의 고성능 스포츠카인 '신형 911 GT3 RS'의 지붕에 적용됐다고 10일 밝혔다.

포스코의 마그네슘 판재는 작년 10월 열렸던 파리모터쇼에서 르노의 콘셉트카 '이오랩'의 지붕에 사용된 적은 있으나 상용차의 외장재로 본격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르셰 911 GT3 RS는 내년 5월 독일에서 출시될 예정이다.

포르셰는 차량 무게를 줄이기 위해 지붕 소재로 알루미늄과 탄소섬유강화플라스틱(CFRP)도 테스트했지만 결국 가벼우면서 얇고 튼튼한 마그네슘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알루미늄 소재보다 지붕의 무게가 30% 이상 줄었고 차량의 총 중량도 이전 모델보다 10kg 가량 감소했다.

마그네슘 판재는 상용금속 중 가장 가벼워 차량 경량화의 핵심 소재로 꼽힌다. 철강재를 썼을 때보다 60%, 알루미늄보다는 30%의 무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포스코는 작년 르노삼성의 신형 SM7에 내장재로 마그네슘이 사용된 데 이어 포르셰도 마그네슘 판재를 채택하는 등 앞으로 자동차에 마그네슘 소재의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소리기자

홈플러스, 신선식품 500개 품목 10~30% 할인

도성환 사장 "경품사기·개인정보 불법 유출 깊이 반성"…재발방지 약속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60·사진)이 최근 불거진 경품사기·개인정보 불법 유출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도 사장은 10일 서울 소공동 플라자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국민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홈플러스 임직원은 국민의 우려를 마음 깊이 새기고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신뢰받는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도 사장은 이날 홈플러스의 체질 개선방안으로 가격·품질·매장·서비스 등에 대한 4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혁신안의 배경으로 장기불황과 대형마트 월요일 휴무 등에 따른 경영난 등으로 인해 기존 관행적으로 지속되던 경영문화를 바꾸지 않고서는 기업이 더 이상 생존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500개 신선식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대폭 낮추고 기존 대형마트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질로 고객에게 다욱더 가치가 있고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다"며 "사회에 기여하고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위해 시니어 500명을 신규 채용할 것"이라고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홈플러스는 12일부터 고객이 가장 많이 찾는 500가지 신선식품을 소비자 물가 관리품목으로 정하고 약 1000억원을 들여 상시적으로 10~30% 할인된 가격에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연중 상시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 장바구니 체감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우리나라 농가 소득 증대 및 내수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다.

도 사장은 "물량 확보를 장기간에 거쳐 진행해왔다"며 "일반 프로모션처럼 협력사의 부담을 분담케 하면서 가격을 낮추는게 아니라 홈플러스의 마진을 줄여서 상시 인하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대형마트업계에서 취급하는 상품 품질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항상 최고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1등급 이상 삼겹살을 추가로 취급하고 사과·바나나 등 주요 과일의 경우 정기 조사를 통해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종과 당도·크기·식감 등이 우수한 식품만 판매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매장과 서비스도 혁신해 신선식품 매장에 미국 홀푸드마켓에서 볼 수 있는 낱개 진열 방식을 도입, 소비자가 식품의 색·향기 등 전반적인 질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신선식품 전문관리직원인 '신선지킴이' 500명을 신규 채용해 고객이 좋은 품질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사장은 "유통업의 본질에서 고객과 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업이 되고자 한다"며 "논어에 나오는 수기안인(修己安人·자신을 수양하고 주위를 편안하게 함)의 자세로 고객과 협력사, 지역사회에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영국 테스코의 홈플러스 매각 가능성과 관련, "지난해 영국 테스코 최고경영자 교체 후 유럽에서 테스코의 점유율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이 안정되고 있다"며 "다만 저희로서는 매각 등은 주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최상급 와인 5만원에 이마트(대표 이갑수)는 10일 국내 최초로 프랑스 보르도 그랑크뤼 1등급 샤토 [illegible] 오리지날 [illegible]를 사용해 만든 와인 3종을 선보였다. 가격은 [illegible] 4만9900원, 설렉[illegible] 3만9000원, 소떼른 3만9000원이며 각 5000병 한정 수량으로 내놓았다. /이마트 제공

롯데, 국민연금 등과 1조원 해외투자펀드 조성

롯데그룹이 국민연금 등과 1조원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조성한다.

롯데그룹은 10일 소공동 롯데빌딩 26층 더[illegible]에서 국민연금이 출자한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펀드(코파(COPA)펀드)인 '롯데-KDB-대우증권-스틱스 글로벌투자파트너십 사모투자전문회사'와 1조원 규모의 해외공동투자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파펀드는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추진해온 해외동반진출 프로그램으로 국민연금이 주요투자자인 사모펀드(PEF) 설립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우수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을 지원해 국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민연금 역시 우량 투자처를 확보함으로써 기금의 수익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롯데-KDB-대우증권-스틱스 글로벌투자파트너십사모투자전문회사는 롯데그룹과 해외공동투자를 위해 조성된 5000억원 규모의 코파펀드로 지난 2월에 설립됐다. 국민연금이 유한책임사원으로 한국산업은행·KDB대우증권·스틱스자산운용이 공동 업무집행사원으로 참여했다.

롯데그룹은 롯데-KDB-대우증권-코스모 글로벌투자파트너십 사모투자전문회사와 별도로 5000억원을 마련해 1대1 매칭투자 방식으로 해외기업 인수 등에 총 1조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황각규 롯데정책본부 운영실장 사장은 "이번 공동투자 조인식은 롯데가 해외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큰 발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유통업계 "가족도 직원이다"… '일·가정 양립' 제도 확대

롯데백화점, 육아휴직 2년 연장

유통업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근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직원과 가족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취지다.

롯데백화점은 아이를 돌보며 일하는 '워킹맘'을 위해 이달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최장 2년으로 연장했다. 2012년부터 별도의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출산휴가 후 바로 1년간 휴직이 이어지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는데 그 기간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자녀돌봄 휴직도 길게는 1년까지 낼 수 있게 됐다. 워킹맘에게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적응을 돕도록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2013년부터 시행된 '자녀돌봄 휴직'은 최장 1개월만 가능했다.

롯데백화점은 워킹맘에 대한 교육 지원도 강화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직원에게 리더십 진단, 여성 리더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완수 롯데백화점 상무는 "우수한 여성 인재들이 육아 부담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의 자동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지난해 대상자의 85%가 활용했고, 자녀돌봄 휴직 사용자도 53명으로 2013년(10명)보다 크게 늘었다.

현대백화점은 직원 가족 챙기기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직원 자녀 중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 선물인 스쿨박스(사진)를 증정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박스 캐릭터로 포장한 스쿨박스에는 미술앞치마·악기세트 등 학용품 23종과 입학 축하 편지가 들어 있다. 또 직원 자녀 중 고3 수험생에게는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로 떡, 보온병, 담요 등으로 구성한 선물도 증정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옥션은 임신·출산을 응원하는 '가족이 힘이다' 캠페인을 열고 31일까지 임신테스트기·베이비키트 1만개를 무료로 배포한다.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모바일 앱에서 '가족이 힘이다'를 검색해 행사 페이지로 들어간 뒤 10원 상품 임신테스트기를 구매하면 된다. 베이비키트로 임신을 확인하고 구매 후 90일 안에 이를 사진 후기로 남긴 고객 100명에게는 기저귀와 분유 등을 할인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쿠폰을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서울우유, 드링킹 요거트 3종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송용헌)은 '짜유리의 아침 드링킹 요거트' 3종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플레인·사과·블루베리 3가지 맛으로, 낙농선진국인 [illegible]의 덴마크에서 연구 개발한 프로바이오틱 BB-12 유산균을 사용했다. 이 유산균은 장운동에 도움이 된 유익한 생균으로 소화력이 약한 영유아를 위한 제품에도 자주 쓰일 정도로 효과나 안정성이 입증됐다.

'주피터 마일드블루 17' 출시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17년산 정통 스카치 위스키 원액을 99%이상 사용한 '주피터 마일드블루 17'을 11일 출시한다.

스코틀랜드의 17년산 정통 위스키 원액을 사용했으며 냉동여과 등 엄격하고 까다로운 공법을 통해 완벽한 향과 더욱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은은한 과일향과 우디향은 간직한 최적의 블렌딩 비율로 제조됐다.

LG생건, 퍼펙트스타 쿠션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은 메이크업 신제품 '이자녹스 퍼펙트스타 쿠션'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오메가 369 성분과 안티에이징 에센스 성분을 함유했다. 잡티를 커버하면서 고급스러운 윤광 피부 표현을 도와준다.

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과 아모레퍼시픽 여성 휴게실.

"출퇴근 시간 유연하게"…워킹맘 好好

ABC 워킹타임·어린이집·여성전용 휴게실 등 여성 위한 복지

아모레퍼시픽(대표 서경배)은 자율출퇴근 제도인 'ABC 워킹타임'과 '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 '여성전용휴게실' 등을 운영하며 모든 직원들이 육아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 인재가 편견이나 차별없이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고용노동부가 주최하는 '제 12회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여성R&D 인력 확충 우수기업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채용 과정과 평가, 급여수준, 복지 혜택 등에 성별 간 차별이 없고 모성보호 프로그램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52)는 "뷰티산업의 특성상 우수한 감수성을 지닌 여성 인재의 육성과 활용이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남성과 여성의 차별없는 조화와 스마트한 업무 환경 구축을 통해 소중한 인재들이 더욱 일하기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취미생활도 존중"-ABC 워킹타임

"아이가 둘이 있는데 매일 두 아이의 등굣길을 챙기고 나서 출근합니다."

아모레퍼시픽 미용연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미경씨(39)는 매일 두 아이의 등굣길을 챙기고 나서 출근하고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직장생활을 15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녀가 일과 육아 어느 한 쪽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여유로운 출근시간 때문이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하다 보니 마음도 놓이고 출근해서는 집중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1년부터 시차 출퇴근 제도 'ABC 워킹타임'을 도입해 임직원의 근무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출근시간을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어학·자격증 공부 등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을 투자하고자 하는 임직원과 자녀보육 등 육아를 위한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자녀보육을 위해서는 워킹맘은 물론 워킹 대디도 사용할 수 있다. 자기계발·육아 등 개인의 삶을 배려할 뿐만 아니라 해외업무가 많은 팀 등 개별적인 업무 방식의 차이점 또한 고려한다는 점에서 많은 임직원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 가족친화경영
시차출퇴근제도 ABC 워킹타임
정시 퇴근 캠페인 식스센스 프로젝트 (이니스프리)
연중 휴가문화 도입
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 운영 (3곳)
저리 전세자금 지원 및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휴게실 운영 (9곳)

아모레퍼시픽은 임직원들의 창의적 몰입을 높이는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고객와 가치를 높이는 창의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효율적인 업무 방식으로 구성원들의 일과 일상 간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자녀와 함께 출근해요"

서울 중구 수표동 아모레퍼시픽 본사에서는 매일 아침 자녀의 손을 잡고 출근하는 직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설을 이용한 직원들은 회사에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 편하고 자녀와 가까이 있어 일에 보다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서울 본사를 포함한 3곳에서 직원들의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인 '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임직원의 근무편의를 고려하여 자녀들에게 12시간 동안 편안하고 안전하며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모레퍼시픽 어린이집에서는 유기농 재료 등 아이들의 영양과 건강을 고려한 우수한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동종직업군 최상의 처우를 제공해 수준 높은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또 여성 근로자가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울본사 포함 전국 9개 사업장에 여성전용 휴게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여성전용휴게실에는 테이블과 소파, 침대, 발 마사지기 등이 설치돼 있으며 본사의 경우 휴게실 사용자의 건강체크 및 건강상담도 해준다. 아모레퍼시픽은 아울러 여성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성인재가 아모레퍼시픽의 핵심인재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ks.0215@metroseoul.co.kr

공동기획 여성가족부 metro

아모레퍼시픽 "회사와 가정을 하나로"

주택구입·전세자금 저리 지원 정시퇴근 문화 정착 캠페인

아모레퍼시픽은 임직원들의 가족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 새로운 휴가 문화 도입에도 앞장서고 있다. 직원들이 회사와 가정을 하나로 연결해 소속감을 갖고 근무에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모레퍼시픽은 직원들의 생활안정과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에 대해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전 종업원을 대상으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자녀의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의 입학 자녀를 둔 임직원의 경우 입학 기념품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배려도 기울이고 있다.

또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배우자부모 등을 대상으로 경조금 지원과 규정에 따른 휴가 제도도 실시한다. 장기근속 근무자 특별 휴가, 생일자 반차 제도(생일 당일 오전만 근무), 자녀 입학·졸업일 휴가 등도 운영중이다. 전국 호텔,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과 할인 서비스도 제공해 가족 여행에 더 수월해졌다.

특히 기존 하절기(7~8월)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여름 휴가를 연중 휴가로 확대하고 샌드위치 데이를 지정 휴일로 정하는 등 임직원들의 재충전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장기근속 근무자 특별 휴가, 생일자 반차 제도(생일 당일 오전만 근무), 자녀 입학·졸업일 휴가 등의 제도를 마련해 따뜻한 휴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계열사 역시 가족친화경영에 동참하고 있다. 이니스프리는 정시퇴근 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 매주 각기 다른 테마로 식스센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퇴근율 지표 관리, 선물 증정, 점개 조회 등 해당 캠페인을 통해 이니스프리 내 전 임직원이 매주 수요일 6시 정시 퇴근하도록 독려한다.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은 탄력적 점심시간 운영제도를 실시, 최대 2시간의 점심 시간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유연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영업 사원의 업무 방식을 배려한 '현장 출퇴근제'도 도입했다. /김수정기자

100% 원두 추출액 담은 '프리미엄 아메리카노'

자뎅, 아메리카노 5종 구성 아이스 커피 출시

국내 최초 원두커피 전문기업 자뎅은 테이크아웃 아이스커피 브랜드인 '자뎅 프리미엄 아메리카노' 5종을 출시했다.

자뎅 프리미엄 아메리카노는 원두커피 추출액 100%를 사용해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커피감별사인 큐그레이더(Q Grader)가 엄선한 콜롬비아·과테말라 등 유명 산지의 고품질 아라비카 원두를 수석로스터가 자뎅의 30년 노하우를 통해 최적의 비율로 블렌딩하고 직접 로스팅했다. 아메리카노 5종으로 구성됐으며 전용 얼음컵에 부어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아이스 커피다.

자뎅 아메리카노 스위트는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베이스로 고품질 원두를 블렌딩·다크 로스팅해 달콤하고 깊은 맛을 표현했다. 자뎅 아메리카노 미엘드는 기존 자사 제품 대비 설탕 함량을 25% 줄인 로슈거(Low Sugar) 제품이다.

자뎅 아메리카노 블랙은 과테말라 원두를 블렌딩한 후 미디엄 다크 로스팅한 무설탕 커피다. 자뎅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은 독일

청정지대 천연 탄산수에서 얻은 이산화탄소로 카페인을 제거한 RTD(Ready To Drink) 형태의 디카페인 제품이다. 자뎅 로얄 헤이즐넛향은 콜롬비아 블렌딩 원두로 만들어졌으며 고소하고 향긋한 향이 매력적이다.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등 전국 소매점과 온라인 쇼핑몰 자뎅샵(www.jardinshop.co.kr)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유방 건강 미리미리 챙기세요

임우성 이대여성암병원 교수 "자가검진 필요"

여성으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챙길 것들이 많다. 그중 여성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유방 건강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임우성(사진)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에게서 유방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유방암 환자가 매년 늘고 있지만 유방암은 평소 균형 잡힌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먼저 유방암 예방에 좋은 식품으로는 콩류와 과일, 녹지와 저지방 고섬유식 등이 있다. 특히 콩에 함유된 식물성 여성 호르몬인 피토케미컬과 피토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 수용체의 빈 틈을 낚아 유방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또 양배추와 브로콜리 등에 많은 인돌-3-카비놀과 녹차 성분인 폴리페놀 등은 에스트로겐 농도를 저하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

예방만큼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이다. 유방암은 조기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암이다. 자가검진과 정기적인 유방검진 등을 통해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자가검진은 생리가 끝나고 일주일 전후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자가검진에서 ▲한쪽 유방의 크기가 평소보다 커져 있는 경우 ▲한쪽 유방이 평소보다 늘어져 있는 경우 ▲평소와 달리 한 쪽이 부어 있는 경우 ▲유두가 평소와 달리 들어가 있거나 피부가 변한 경우 ▲유두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경우 ▲유방의 피부가 귤껍질처럼 변한 경우 ▲비정상적인 혹이 만져지는 경우 등의 이상 소견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

임 교수는 "평소 관심을 갖고 꾸준히 유방 건강을 챙기는 것이 여성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

63빌딩 백리향 봄 특선메뉴 선봬

나른해지기 쉬운 봄철 제철음식으로 입맛을 되찾아 주기 위해 63빌딩 차이니스 레스토랑 백리향이 다음 달 말까지 봄 특선메뉴를 선보인다.

메뉴는 입맛을 돋우는 시화냉채와 버섯소스 상어 지느러미찜, 그리고 두릅과 냉이 등을 활용한 봄나물 등 총 7가지 코스요리로 구성된다. 또 주말에 10인 이상 가족메뉴를 이용하면 15%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황재용기자

안전보건공단, 미국 재해예방기관과 협력 강화

안전보건공단이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국립안전보건연구원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국립안전보건연구원은 미 보건복지부 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기구로 산업재해의 직업병을 연구하는 연방 정부기관이다. 공단은 1996년 처음으로 국립안전보건연구원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해 지금까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또 이번 협정 체결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향후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2017년까지 공동 연구 등의 인력 교류와 산업안전보건 동향 등의 기술정보 교류, 전문가 초청 워크숍 등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올해 5월 말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산업보건대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협정을 통해 글로벌 안전보건 협력을 공고히 하고 협정 체결 기관과의 기술 교류 등으로 국내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오는 13일 미국 시카고에서 미국 안전기술자 협회(American Society Safety Engineers)와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술 협력 협정을 맺는다.

/황재용기자

강강술래, 국내 최대 갈비전문관 오픈 이벤트

육개장·갈비탕 30%할인에 곰탕 덤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경기 고양시 늘봄농원점에 1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갈비구이 전문관 오픈을 기념해 다채로운 이벤트를 벌인다.

31일까지 전 매장과 온라인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육개장 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2만9000원, 갈비탕 선물세트(500㎖/7팩/14인분)는 3만9900원에 각각 30% 할인 판매하며 구매 시 한우사골곰탕(350㎖)을 2팩 더 준다.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와인(키르멘 플란 웨포) 1병을 주문하면 결제 시 와인(키르멘 돌핀 카베르네소비뇽) 1병을 선물로 증정한다.

15일까지 온라인쇼핑몰과 전화주문을 통해선 인기메뉴로 구성된 한우세트(한우양념구이 560g+한우불고기 500g)는 41% 할인된 6만5000원, 100% 한우로 우려낸 보양식 한우사골곰탕 소용량팩스(350㎖/10팩)는 약 50% 할인된 3만15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봄맞이 여행이나 나들이에 잘 어울리는 영양간식 갈비맛쇠고기육포(10봉/4만2000원)와 100% 한우 갈빗살을 사용한 찰찰한우떡갈비(360g×3박스/4만6200원), 국내산 돼지 통등심 100%와 자연산 모짜렐라치즈를 사용한 모짜렐라돈가스(720g×3세트/4만2000원)도 각각 30% 할인 판매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홈페이지(sullai.com) 고객마당/경품이벤트에 신랑글을 남기면 청담동 헤어&메이크업숍 '작은차이'의 헤어 커트 무료이용권(5만5000원)과 기력 보충에 좋은 보양식 갈비탕과 육개장 선물세트도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직원가족까지 챙기니 기업성과도 쑥쑥

이국명 기자의 일짜기업 탐방 ㉚

한국애브비

자녀 조정 요리 교실 눈길 탄력근무·패밀리데이 호응 '아시아 일하기 좋은 기업'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인 한국애브비는 일 년에 두 번 '신나는 놀이터'로 변한다. 복잡한 업계 용어와 심각한 업무 이야기 대신 따뜻하고 정겨운 대화가 사무실을 가득 채운다. 끊이질 않고 터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즐거움을 더한다.

한국애브비가 직원들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해 마련하고 있는 가족 참여프로그램 이야기다. 한국애브비는 직원자녀들이 엄마아빠의 일터를 직접 둘러볼 수 있도록 매년 초·중고등학교 여름방학 때에는 티조엘 물펌대회, 스프링클러 만들기, 공룡 모형 만들기 등을 체험하는 '과학교실(패밀리 사이언스)'을, 겨울방학 때에는 케이크, 쿠키 등을 만드는 '요리교실'(쿠킹클래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멋진 엄마·아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직원들의 호응이 크다는 설명이다.

◆연말엔 2주간 재충전 휴가

이뿐만이 아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거나 출산을 앞둔 직원들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유동적으로 정하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에 열리는 '패밀리데이'에는 가족과 여유로운 주말을 계획할 수 있도록 오후 4시30분에 퇴근할 수 있다. 가족 사연을 적어 신청하면 직원 심사단 투표를 통해 가족여행비를 지원하는 '우리 가족, 어디가?' 프로그램도 인기다.

여기에 연말에는 2주간 '재충전 휴가제'를 운영해 전 직원이 여행이나 취미활동을 즐기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2년간 MBA 학자금도 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웬만한 대기업 직원들이 부러워할 정도다.

외부강사초청강연, 온라인 영어·인문학 교육은 물론 성과가 뛰어난 임직원들에게는 2년간 MBA 학자금도 지원한다.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일반직원 간의 지식교류를 장려하는 '오픈 러닝 미팅', 분기별로 혁신 모범사례를 뽑는 '이노베이션 어워드'도 호응이 높다.

이런 '꿈같은' 복지·교육제도를 갖춘 덕분에 한국애브비는 최근 글로벌 경영컨설팅그룹 GWP에서 선정한 '아시아 일하기 좋은 60대 기업(Best Workplaces in Asia, 2015)'에 뽑혔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올해 처음 시작된 이번 시상에 이름을 올린 11개 한국 기업 중 한국애브비는 유일한 외국계기업이다.

이보다 앞서 한국애브비는 2년 연속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 뽑혔고, 2014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에도 선정된 바 있다.

◆직원추천제 등으로 인재 뽑아

한껏 높아진 애사심은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다국적 제약회사 애보트에서 분사한 이후에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인 '휴미라'가 블록버스터가 되면서 처방약 시장 매출 1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AIDS 치료제 '칼레트라' 등 난치성 질환 전문의약품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분사 당시 70명에 못 미치던 인원도 현재 90여 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애브비는 이같이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도 수시채용을 통해 인재를 뽑을 예정이다.

안진희 인사부 부장은 "중역회의에 참석하는 임원중 여성의 비율이 60%에 달할 정도로 채용·승진에 남녀차별이 없다는 점도 자랑거리"라며 "직원추천제를 통해 경력직을 많이 뽑고 있다는 점도 참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통찰력·긍정적 태도 갖췄다면 '금상첨화'

이런 인재를 원한다

"지난해 한국직장기 최선의학저널에서 얻은 휴미라 에 대한 정보를 면접에서 자세히 설명해 임원들을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안진희(사진) 인사부 부장은 이처럼 회사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돼 있는 구직자라면 누구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국애브비의 인재상은

▶▶환자 중심, 혁신, 빠르고 신속한 결단, 윤리적 투명성, 인재 개발 존중이다.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람이다. 통찰력과 긍정적인 태도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다.

▶채용절차는

▶▶서류, 실무진 면접, 임원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실무진 면접에서는 면접관을 의사라고 생각하고 제품을 소개해 봐라 등 주어진 상황에 대한 해결 능력과 프레젠테이션 스킬을 평가한다.

▶합격 노하우가 있다면

▶▶스펙이 좋은 '인재'보다는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뽑는 회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자신의 장점을 파악해 어울리는 직무군에 지원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이야기다. 면접을 볼 때도 추상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회사에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을 '기-승-전-결'의 스토리를 갖춰 짜임새 있게 말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교육 받고 장학금도 챙기고

휴넷 대학생 기자단 모집

휴넷의 고급 교육프로그램을 무료로 들으며 장학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직장인교육 전문기업 휴넷은 22일까지 대학생 기자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휴넷 홈페이지(www.hunet.co.kr)에서 간단한 미션 수행 후 지원서를 작성해 e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대학생 기자단은 휴넷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지원 자격은 휴넷과 교육에 관심이 많고 글쓰기를 좋아하는 대학교 재학생·휴학생이다.

4~6월로 예정된 활동기간 동안 월 10만 원의 취재비를 지급한다. 우수 활동자에 뽑히면 대상 100만원(1명), 최우수상 50만원(1명), 최우수팀상 50만원(1팀), 우수상 30만원(3명) 등 총 300만원의 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휴넷이 진행하는 강연인 '골드명사특강',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미래의 빌 게이츠 육성한다

인턴십·프로젝트 지원·채용 기회도

1990년 어느날 빌 게이츠는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미래 연구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기술 연구에 집중해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존할 수 없다." 편지 내용에 깊이 공감한 게이츠는 이듬해 '마이크로소프트연구소'(MSR)를 설립했다. 미국, 중국, 인도 등 전세계 각지에 설립된 MS연구소는 2005년 우리나라에도 설립돼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는 10일 광화문 사옥에서 'MS연구소 학술연계 지원 프로그램 시행 10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재 육성 플랫폼 소개와 관련 성과를 발표했다.

MS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250건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됐다. 지원된 금액은 순수 프로젝트 비용만 900만 달러(약 100억원)이상에 달한다. MS 연구소를 통해 취업 기회를 얻은 인원도 매년 늘어났다. 우리나라 MS연구소 참여 학생 가운데 미국 MS 레드몬드 연구소에서 41명이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쳤다. 이 중 3명이 현재 MS 시애틀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MS연구소 인턴 프로그램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일대일 멘토링을 제공한다. 인턴십 기간이 끝나더라도 학생들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MS연구소에서 학술연계 지원을 담당해온 이미란(사진) 상무는 "우리 연구소는 사람 중심의 선순환적인 이공계 인재육성을 경영 철학으로 하고 있다"며 "대학과 교수에게는 MS의 기술과 자원들을 조건 없이 개방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학생들에게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이공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윤희기자 unique@

"또 형사? 배우로서 목말랐던 영화죠"

'살인의뢰' 김상경

김상경(43)이 형사로 돌아왔다. '살인의 추억'과 '몽타주' 단 2편의 영화만으로 '형사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을 단 만큼 '또?'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살인의뢰'(감독 손용호)에서 김상경이 맡은 형사는 앞선 두 영화와 다르다. 형사와 피해자의 경계에 서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살인의뢰'는 시작부터 스릴러 장르의 공식을 배반한다. 기존 영화와 달리 살인범이 잡힌 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의 가족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아이러니한 설정도 새롭다. 김상경이 '살인의뢰'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 신선한 설정 때문이었다.

"'몽타주' 제작사에서 이 작품을 제안해서 의아했어요. '몽타주' 때도 10년 만에 두 번째로 형사 역할을 맡은 건데 다들 '형사 전문 배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살인의뢰'는 시나리오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배우로서 목말랐던 지점에 있는 영화였어요."

'살인의뢰'에서 김상경이 연기한 태수는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함 속에 날카로운 촉을 숨기고 있는 베테랑 형사다. 우연찮게 연쇄살인마 강천(박성웅)을 검거하는데 성공하지만 강천의 마지막 피해자가 자신의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복잡한 심경에 사로잡히는 인물이다. '살인의 추억'의 서태윤, '몽타주'의 청호가 수사 형사로서 사건에 뛰어들었다면 '살인의뢰'의 태수는 형사가 아닌 피해자 가족인 점이 다르다.

"'살인의 추억'과 '몽타주'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아닌데도 범인을 잡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 싶었어요. 물론 조사를 하다 보니 그런 형사들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하지만 '살인의뢰'는 형사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이라서 느끼는 감정이 전혀 달랐어요. '브라더 후드'에서 동생이 죽었을 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형사이자 피해자 - 신선한 설정 끌려
10일만에 10kg 감량 - 가장 큰 도전
힘든 감정 '가족끼리 왜 이래'로 힐링

영화는 3년의 시간이 지난 뒤 아픔을 간직한 피해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김상경은 3년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10일 만에 체중 10kg을 감량했다. "배우로서는 가장 큰 도전이었죠. 영화를 찍으면서 체중을 감량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해도 50% 밖에 충전이 안 되는 기분이었어요." 외모 변화 못지않게 감정 표현도 힘들었다. 3년이 지난 뒤 태수가 여동생의 시계라도 찾겠다는 마음에 교도소에 있는 강천을 찾아가는 장면이 그랬다. "감정의 톤을 잡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태수는 동생의 시계라도 찾고 싶은 마음에 미칠 같아 강천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말을 하지 않는 강천에게 태수가 분노를 느낄지 아니면 체념한 기분일지 줄 저릴 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와 슬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곧바로 합류에 들어간 KBS2 주말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덕분이었다. 유머러스한 캐릭터로 안방에 편안한 웃음을 선사했던 김상경은 "'가족끼리 왜 이래'를 통해 나 역시 힐링이 됐다"고 말했다. 영화에 이어 드라마까지 쉬지 않고 달려온 그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면서 차기작을 고를 생각이다. 늘 그래왔듯이 편안하면서도 새로운 작품으로 대중과 만날 예정이다.

"형사로서는 범인을 늘 쫓았다. 잡았고 피해자의 입장까지 됐으니 이제는 더 이상 형사 역할 제안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살인자처럼 비밀을 숨겨야 하는 인물이면 하고 싶어요. 홍상수 감독님 영화 속 주인공한테 갑자기 사람을 죽이는 역할이라면 재미있지 않겠어요? (웃음)"

star bag

소속사와 13년 의리

배우 김정화가 현 소속사 솔트 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했다. 김정화는 MBC '논스톱3'(2002) 출연 당시 소속사와 인연을 맺었다. 솔트 엔터테인먼트 측은 "김정화는 그동안 함께 쌓아온 믿음을 바탕으로 최근 재계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김정화가 작품을 통해 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똑순이 캐릭터 변신

배우 임세미가 KBS2 새 일일극 '오늘부터 사랑해'에 출연한다. 지난해 SBS '서릿발 할매 여이어 일일드라마 여주인공으로서 견고한 입지를 다질 예정이다. 임세미는 극중 종가 동락당의 종녀 윤승혜 역을 맡았다. 동락당의 실질적인 생계를 책임지는 인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제 손으로 돈을 버는 똑순이 캐릭터다.

신예 래퍼 데뷔앨범 발매

지난해 엠넷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래퍼 아이언(IRON)이 이달 중 데뷔 앨범을 발표한다. 아이언의 소속사 ... 스 엔터테인먼트는 "아이언이 최근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쳤다"며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 현재 막바지 작업과 발매일자 조율만 남은 상태"라고 10일 밝혔다.

영화 '검은 사제들' 합류

신예 배우 박소담이 영화 '검은 사제들'(감독 장재현)에 합류한다고 소속사 카라멜엔터테인먼트가 10일 밝혔다. '검은 사제들'은 위험에 직면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 미스터리한 사건에 뛰어든 두 사제의 이야기를 그리는 영화다. 박소담은 위험에 직면한 소녀 영신 역을 맡았다. 영화는 앞서 김윤석, 강동원의 캐스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크로스오버 아트메탈 진수 보여준다”

하이브리드 고딕메탈 밴드 하데스 더 바이올렛(HADES The Violet)이 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제일라아트홀에서 첫 단독공연을 개최한다.

하데스 더 바이올렛은 전지니(키보드)·박현원(기타)·강민수(드럼)를 중심으로 지난 2012년 결성됐다. 지난해 송효현(보컬)과 CHARLES S(베이스)를 영입하면서 현재의 틀을 갖추게 됐다. 이들은 오는 5월 정규 1집 '골든 에이지(Golden Age)' 발표에 앞서 이번 공연에서 자신들의 음악을 먼저 선보일 계획이다.

하데스 더 바이올렛은 국내 인디밴드신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고딕메탈, 그 중에서도 크로스오버 아트메탈이라는 다소 생소한 장르를 추구한다. 하데스 더 바이올렛이라는 팀명은 그리스 로마신화에 등장하는 죽음의 신 '하데스'와 신비로움·우아함을 상징하는 색깔 '바이올렛(보라)'을 합친 것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음악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들의 음악은 무거운 기타·베이스 사운드 위로 멜로디가 돋보이는 키보드 선율과 서정적인 소프라노 보컬이 만나며 폭발적이면서도 몽환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이날 하데스 더 바이올렛은 바토리(Bathory)·'나이트메어(Night mare)'·'헤라(Hera)'·'다크 나이트 오페라(Dark Night Opera)'·'로즈(Rose)'·'엘도라도(Eldorado)'·'아스테리아(Asteria)'·'골든에이지(Golden Age)' 등을 부를 예정이다.

'다크 나이트 오페라(Dark Night Opera)'는 헤비메탈풍의 연주 위에 감성적이고 몽환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으로 하데스 더 바이올렛의 독특한 음악색깔을 엿볼 수 있다.

'아스테리아(Asteria)'는 오케스트라의 전개를 차용한 곡으로 인간의 탄생부터 진화·전쟁·멸망·희망으로 이어지는 서사적인 구조가 돋보인다.

'골든에이지(Golden Age)'는 비주류 음악인 고딕메탈로 황금시대를 맞이하겠다는 하데스 더 바이올렛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는 곡이다.

한편 이날 공연엔 3인조 하이브리드 락밴드인 '배드큐피트(BAD CUPID)'가 게스트로 참여한다.

/김석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제시, 오른쪽)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열린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공동인터뷰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CJ E&M

“살벌해 보여요? 실제론 친해”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 출연진 고백 … 시즌2 제작 확정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물론 음원 차트까지 점령했다. 지난 1월 29일 시작한 엠넷 '언프리티 랩스타'는 매회 화제를 낳으며 인기 고공행진 중이다.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만큼 각종 패러디와 논란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언프리티 랩스타' 출연진은 1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하의 편집이 없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걸그룹 AOA 지민은 아이돌 래퍼라는 편견을 깨고 당당히 트랙을 따지했다. 제시는 데뷔 10년 만에 많은 팬들이 생겼다. 타샤는 '오디오 래퍼'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언프리티 랩스타'를 통해 하나같이 "좋은 친구를 얻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로 날선 말들을 뱉어냈던 살벌한 디스전과는 180도 다른 훈훈한 분위기였다.

졸리브이는 "인생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잃은 것이 있다면 자유다. 휴대폰 들어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봐 '생얼'로 못 다니겠다"고 미소지었다.

키썸은 "지난 1년 동안 연습한 것보다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온 동안 실력이 더 많이 늘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실력을 증명해서 제 외모만 보고 절 무시하던 '헤이터(Hater)'들을 잃은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제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돼 정말 좋다"며 "하지만 위해를 했을 땐 (동심들에게) 욕을 해서 마음이 불편했다"며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다. 육지담은 "'쇼미더머니 3'에서 얻은 '힙합밀당녀' 타이틀을 잃은 것 같아 서운하다"고 농담 섞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언프리티 랩스타'는 인기에 힘입어 시즌2 제작을 확정했다.

/김지민기자 [illegible]

‘징비록’ 김상중 “거센 이야기 전개”

현장 공개 … 김태우 “류성룡 대체 불가 신하”

KBS1 대하사극 '징비록'에서 선조로 분한 김태우가 신하 류성룡(김상중)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다.

10일 KBS 수원센터에서 열린 드라마 기자간담회에서 김태우는 "버릴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신하"라며 "선조는 자신의 안위를 위하는데 류성룡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바른 사람이다. 왕으로 바로 서려면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믿음을 드러냈다.

'징비록'은 조선 최고의 점자가 세에 류성룡이 임진왜란 중 남긴 기록이다. 왜란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노량해전까지 조정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그러나 글로 쓴 '징비록'보다 드라마 전개가 처진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김상휘 PD는 "12회 말부터 일본군이 들어올 것"이라며 "'징비록' 버전이 여러 가지라 제작진도 임진왜란이 몇 회에 나올지 의논했다. 그런데 전쟁도 중요하지만 왜 전쟁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연출 포인트를 설명했다.

지난해 정통 사극 열풍을 일으킨 '정도전'보다 반응이 미지근하다는 여론에 대해 김상중은 "'징비록'은 은은하지만 힘이 느껴지는 게 강점"이라며 "앞으로 거센 이야기가 나온다"고 향후 전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신효원기자 [illegible]

‘카리스마 여자 보스’ 김혜수

'차이나타운' 스크린 컴백

배우 김혜수(사진)가 영화 '차이나타운'(감독 한준희)의 여자 보스로 스크린에 돌아온다.

'차이나타운'은 오직 쓸모 있는 자만이 살아남는 차이나타운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살아온 두 여자의 생존법칙을 그리는 영화다. 김혜수는 냉혹하고 비정한 세상인 차이나타운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엄마라 불리는 인물을 맡았다. 폭력적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조직을 일궈 차이나타운을 지배하는 강렬한 캐릭터다.

김혜수는 이번 영화에서 사실적인 캐릭터 표현을 위해 특수 분장으로 두툼한 뱃살을 만들고 거친 머리카락과 피부를 연출하는 변신을 시도했다. 김혜수 스스로 분장과 의상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변신을 즐겼다.

한준희 감독도 "김혜수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내달 개봉 예정.

/장병호기자 [illegible]

우리의 혁명은 숲에서 시작된다

3/18 2PM, FINAL TICKET OPEN

DAS MUSICAL

ROBIN HOOD

로빈훗

2015.4.18- 5.2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이청용 내달 복귀할 듯

구단주 "3주 후 완전한 훈련 가능"

지난 1월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에 나섰다가 오만 선수의 깊은 태클에 정강이를 다쳐 재활에 매진해온 한국 축구 대표팀의 공격수 이청용(27·크리스털팰리스·사진)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복귀전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스티브 패리시 크리스털팰리스 구단주는 10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청용이 3주 후에 완전한 훈련에 참가할 수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감각을 위한 팀 훈련, 연습 경기 등을 포함해 출전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청용은 지난 1월 겨울 이적시장 때 챔피언십(2부리그)에 머물러 있는 볼턴을 떠나 크리스털팰리스로 이적했다.

크리스털팰리스는 현재 승점 30을 쌓아 10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프리미어리그 12위를 달리고 있다. 강등권(18~20위)에 있는 18위 퀸스파크레인저스와의 승점차는 8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illegible]기자

박주영 '돌고 돌아 집으로'

친정 FC서울과 3년 계약…"연봉 백억종군 수준"

스트라이커 박주영(30·사진)이 결국 국내 무대로 복귀한다.

FC서울 이재하 단장은 10일 "박주영과 3년 계약을 체결했다. 곧 팀 훈련에 합류할 계획"이라며 "연봉은 양측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백억종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주영이 연봉과 같은 계약조건보다는 K리그에서 선수생활을 잘 마무리할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덧붙였다.

2005년 서울에 입단해 프로 무대에 뛰어든 박주영은 2008년까지 91경기에서 33골, 9도움을 기록했다. 데뷔 시즌 18골을 터뜨리며 신인왕에 올랐다.

2008년 9월 프랑스 AS 모나코로 이적해 2011년 8월까지 3시즌 동안 26골을 넣었다. 이적 첫 해 5골을 기록하며 유럽 무대 연착륙에 성공했고, 이듬해 프랑스 FA컵을 포함해 33경기에서 9골을 터뜨리며 프랑스 수준급 공격수 대열에 합류했다. 2010~2011시즌에는 35경기 12골을 기록하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1부리그에서 뛰던 설기현 이후 처음으로 단일 시즌 10골 이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잉글랜드 아스널에 진출하고서 박주영의 축구 인생은 꼬였다. 아스널에서 출전기회를 잡지 못해 애를 태운 그는 스페인 셀타비고, 잉글랜드 왓퍼드, 사우디아라비아 알샤밥 등을 떠돌다 결국 자리를 잡지 못하고 국내 복귀를 결정했다.

2013년 득점왕 데얀을 중국 리그로 이적시키고 나서 스트라이커 부재에 시달려온 서울은 박주영을 영입하면서 약점으로 지적받은 마무리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판측된다.

이재하 단장은 "박주영이 서울에서 부활하면 한국 축구가 잃어버린 자산을 하나 되찾는 셈인 것"이라며 "박주영의 가세로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흥행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풍운아' 최향남 오스트리아로

세미프로팀 다이빙 덕스와 계약 선수생활 연장

풍운아 최향남(44·사진)이 이번에는 유럽 오스트리아로 진출해 선수 생활을 이어간다.

지난해 팀을 해체한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 관계자는 10일 "최향남이 오스트리아 세미프로리그 다이빙 덕스와 계약했다"고 전했다.

최향남 야구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었다.

1990년 해태 타이거즈(KIA 전신)에 입단해 2005년 시즌을 마치고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마이너리그 계약을 체결하며 미국 무대에 도전했다. 꿈꾸던 빅리그 마운드를 밟지 못하고 2007년 국내로 돌아와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했다.

2008년 시즌이 끝난 뒤 포스팅(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미국 진출을 추진했다. 당시 그는 101달러의 상징적인 금액만 제시한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계약했다.

최향남은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미국 프로야구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인 선수로 남았다. 하지만 두 번째 도전도 실패했다.

최향남은 메이저리그 문턱을 넘지 못했고 일본 독립리그를 거쳐 2012년 KIA로 돌아왔다. 지난해 다시 미국 진출을 추진했지만 결국 팀을 찾지 못하고 원더스에 입단했다.

오스트리아 북동부 비너 노이슈타트를 연고로 한 다이빙 덕스는 세미프로 1부리그에 속한 팀이다. 6개 팀이 팀당 20경기를 치러 1·2위는 유럽 챔피언을 가리는 유로파 리그에 출전한다. 경기력은 한국 고교야구 1~2학년 수준이다.

고교 선수 출신으로 지난해 롯데에서 크리스 옥스프링과 함께 유먼 통역을 했던 하승준(32)씨가 11월부터 총감독으로 일하고 있다.

다이빙 덕스는 이날 "한국 프로야구와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경험을 쌓은 최향남을 영입했다"며 "그의 나이를 보고 선불리 기량을 판단하지 마라. 오스트리아 야구에 많은 것을 선물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최향남은 오는 25일께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팀에 합류할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윤석민 "한파에도 훈련은 해야지" 메이저리그 도전의 꿈을 접고 KIA로 복귀한 윤석민이 10일 경북 포항시 포항야구장에서 열린 예정이던 삼성과의 시범경기에 앞서 연습투구를 하고 있다. 이날 예정된 시범경기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한파주의보 때문에 전 경기가 취소됐다. /연합뉴스

강정호 첫 3루 수비 합격점

MLB닷컴 "안정적… 피츠버그 기쁘게 했다"

미국 메이저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3루 수비를 소화한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매우 편안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강정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든턴의 매케크니 필드에서 열린 미네소타 트윈스와 시범경기에 5회말 대타로 출전해 3루 수비까지 소화했다. 앞선 3차례 시범경기에서 홈런과 2루타 하나씩을 선보이며 장타력을 입증했던 강정호에게 이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3루 수비였다.

강정호는 7회초 첫 타자 트레버 플루프의 땅볼 타구를 잡아 안전하게 1루로 송구하며 빅리그 3루수 첫 수비 를 무난하게 마쳤다.

8회 무사 2루에서는 2루와 3루 사이에서 런다운에 걸린 미네소타 에런 힉스를 포수 엘리아스 디아즈, 유격수 페드로 플로리몬과 호흡을 맞춰 태그아웃 시키는 협살도 했다. 힉스를 태그한 야수가 강정호였다.

MLB닷컴은 "피츠버그는 입단 후 처음 3루수로 나선 강정호를 주목했고, 강정호는 충분히 피츠버그를 기쁘게 했다"고 호평했다.

이어 "상황에 따라 강정호를 한국에서 자주 서지 않은 3루수, 2루수 포지션에 기용하려는 피츠버그의 계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클린트 허들 감독은 강정호를 유격수 자원으로 분류하면서도 조디 머서가 주전 유격수 자리를 지킬 경우 강정호를 내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활용할 계획이다. /[illegible]기자

서울대에 '학내 성폭력 규탄' 바람 분다

'여제자 성추행' 의혹 교수 처벌 온·오프 서명운동

지난해 잇따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대에서 신학기부터 강한 자정 바람이 불고 있다.

10일 서울대에 따르면 캠퍼스 곳곳에는 'STOP! 학내 성폭력'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나붙었다.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붙은 대자보에는 성폭행에 관한 오해와 진실, 학내 성폭력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글이 적혔다.

이 대자보는 '서울대 교수 성희롱·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이 만든 것이다. 공동행동은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와 대학원생총학생회 등이 학내 성폭력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달 11일 결성한 단체다.

공동행동 측은 "학내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이자보를 붙이고 3월 둘째 주까지 등하교 시간에는 직접 성폭력 문제를 환기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여제자 여러명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강석진 수리과학부 교수의 처벌을 촉구하는 온·오프라인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공동행동 측은 '피고인 강석진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연대서명서에서 "아직도 수면 밑에 숨겨져 있을 수많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번 재판의 결과는 중요한 신호가 될 것"이라며 "학생과 여성을 비롯해 잠재적 피해자가 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는 수백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행동은 오는 12일까지 서명운동을 벌이고 서명지를 18일로 예정된 강 교수 재판 전 제출할 예정이다.

/조현정기자 jh@metroseoul.co.kr

심정지 환자 살린 '하트세이버' 1년사이 39% 늘어난 224명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 생명을 구한 일반인 '하트세이버'가 지난해 224명이 나왔다.

10일 국민안전처는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심장정지 환자를 살리는 데 기여한 일반 시민 224명에게 지난해 '하트세이버 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전년도(2013년) 161명과 비교해 39% 늘어난 수치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8.7% 포인트 높아져 41.8%를 기록했다.

제주(52.1%), 서울(51.8%), 광주(49.5%)는 일반인 목격자의 시행률이 절반에 달했다.

심폐소생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효과 덕분인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119가 출동한 심정지 환자 3만309명 가운데 응급처치를 받아 병원에 도착하기 전 자발순환(맥박이 감지되는 상태)을 회복한 환자의 비율은 1년 전보다 0.8%포인트 늘어난 5.3%로 집계됐다.

심정지가 발생하면 뇌에 산소 공급이 차단, 4분이 지나면서부터 급격한 뇌손상을 일으킨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심폐소생술 실천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재용기자 hsoul38@

1호 전기 트럭 탄생 한국전기연구원이 경남도, 창원시와 함께 전기자동차로 고쳐 1t 전기 트럭을 만들었다. 이 트럭은 시범운행을 거쳐 상용화에 들어간다. /연합뉴스

여전히 나이·성별 보는 기업들

36% 신입 채용시 고려

나이, 성별 등의 자격조건을 비공개적으로 제한하는 기업이 아직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취업포털 사람인에 기업 325개사를 대상으로 신입을 채용할 때 공개하지 않는 자격조건에 대해 물어본 결과 36%가 '있다'라고 답했다.

비공개 자격조건(복수응답)으로는 '나이제한'(49.6%)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나이제한 기준으로 남성은 평균 33세, 여성의 경우 평균 32세로 나타났다. 이밖에 '성별'(23.9%), '거주지역'(23.1%), '전공'(17.1%), '학력'(15.4%), '결혼여부'(15.4%), '군필여부'(12%), '특정 자격증 보유'(11.1%), '어학성적'(10.3%) 등도 비공개 자격조건이라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이들 기업중 90.6%는 비공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를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탈락한 지원자의 비율은 평균 30%로 집계됐다.

/하유미기자 [illegible]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관리 불량

서울시, 노선 불열치·청소 미흡 등 728건 적발

서울시는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노선 번호와 노선도 불일치, 청소 불량 등 728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2개 도로축을 중심으로 13개 지역의 중앙정류소 승차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광고패널, 유리, 지붕, 의자, 조명, 노선도 등 승차대 관리 부실 523건을 적발했다. 펜스, 보도, 휴지통, 가로등, 식수 등 부대시설 등의 관리 부실도 205건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곳은 도봉·미아로 25곳의 정류소에서 123건을 기록했다. 시흥·한강로 역시 25곳 112건으로 높은 적발률을 나타냈다. 적은 지적을 받은 곳은 수색·성산로 10곳 정류소에서 20건이 적발됐다. 전용·하남BRT는 6곳에서 24건을 지적받았다.

단일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정류장은 송파대로에 있는 석촌호수 정류소로 노선 번호와 노선도 불일치, 지붕과 바닥 청소 불량, 의자 도색노후 등 10건이다.

공항로 송정역 정류소는 광고패널과 펜스 도색 불량, 독서대·바닥 청소 불량 등 10건이 적발됐다.

주로 노선 번호와 노선도 불일치가 많았으며 광고패널과 의자 도색 불량, 바닥 청소 불량 등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조현정기자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소재부품산업정책관 김용래

■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대변인 장재국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담당관 김종해 ▲복지증진국 복지정책과장 허윤선 ▲춘천보훈지청장 서인자 ▲울산보훈지청장 주명희 ▲국립산청호국원장 안덕찬 ▲충북보훈지청장 차현종 ▲안동보훈지청장 최광웅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장 최정길

■국세청
◇계장급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종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2과장 김원준 ▲금천세무서장 김양중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2과장 정태만
◇초임세무서장 ▲원주세무서장 박종태 ▲속초세무서장 안혁준

■하나캐피탈
<전보>
◇부문장 겸 본부장 ▲재무제권부문 김승동 ▲오토금융부문 김명인 ▲커머셜금융본부 이도용 ▲감사본부 내부감사 송갈원인 허용택 ▲채권본부 문병기
◇지점장 ▲경기지점 김정균 ▲강동지점 공병구 ▲대구지점 김동용 ▲경남지점 이종협 ▲강남커머셜금융지점 황효천 ▲인천커머셜금융지점 김경선 ▲대전커머셜금융지점 구본탁 ▲전남커머셜금융지점 김국정 ▲부산커머셜금융지점 이연오
◇본사 팀장 ▲경영기획팀 김석욱 ▲전략혁신팀 김종훈 ▲정보보호팀 박김 ▲개인심사팀 여운덕 ▲인사교육팀 김대중 ▲노사협력팀 배영천 ▲중고차금융팀 이정후 ▲소지승용팀 윤국일 ▲리테일 윤용훈 ▲커머셜금융팀 김영희 ▲다이렉트금융팀 최인규

■한국원자력연료
▲기술본부장 이상윤 ▲핵연료설계관리처장 조병조 ▲설계연구실장 권태제 ▲신규원전사업팀장 신재욱 ▲공동기술부장 김동헌

부고

▲김상식씨 별세, 정재호(옥진프라이빗에퀴티 대표이사)·곽영(PCA생명 이사)씨 부친상 = 10일 오전 5시, 여의도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2일 8시. 02-3779-1526

▲속순행씨 별세, 박재원(삼성전자 책임연구원)씨 모친상, 여상국(케노푸니 이사)·김영주(테스코 부장)·전서욱(쌍대 과장)씨 장모상 = 10일 오전 3시4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2일 오전 8시. 02-3010-2236

▲박연이씨 별세,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씨 모친상 = 9일, 인천 세천장례식장 303호, 발인 11일 032-552-3100

▲김기리씨 별세, 유 전(전 서울신문 모스크바 특파원,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세종 수원국악진흥원 예술감독)씨 모친상 = 9일 별세, 11일 오전부터 조문 가능, 서울보라매병원 장례식장, 발인 13일 오전,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010-8907-8651

▲김우순씨 별세, 시의석(전 청와대 비서관)·종현(자영업)·영석(경기도의원)·근석(국세청)씨 모친상 = 9일, 광주 북구 그랜드장례식장 4층 VIP실, 발인 11일. 010-2859-0157

▲이순동씨 별세(향년 87세), 이동신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무 모친상 = 10일 밤 10시, 대구시 동구 신암동 파티마병원 장례식장 VIP실, 발인 12일. 장지 경마공원 053)65-4445

드디어 투표 시작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를 하루 앞둔 1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에서 경기도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종, 국보법 편법 적용?

압수수색 영장에 살인미수 등만 기재 · 대공 혐의점 파악 위한 수사 논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편법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새벽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사무실 겸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는 살인미수 등이었다

경찰은 이 압수수색 영장으로 서적 간행물 유인물 등 총 219점을 확보했다 그중 북한원전 등 30점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단에 이적성 여부를 의뢰했다 즉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내사를 실시한 셈이다

하지만 문제는 경찰이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혐의로 증거품을 압수하고서 별도 혐의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한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영장을 신청해 압수수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압수수색 당시 보안수사대 요원까지 투입한 점을 감안하면 살인미수 계획이나 동기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하려다 불온서적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대공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한 압수수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영장에 국가보안법 혐의를 기재하려고 했지만 검찰 수사지휘 과정에서 빠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한 관계자는 "범행 계획과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 서류와 서적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였다 압수물품 중에 이적표현물로 간주될 만한 것이 나와 의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10일 서울 송파구 경찰병원에서 검거 도중 입은 발목골절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일단 구속 상태를 유지하면서 치료와 함께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정부 공공아이핀 해킹 뒤늦게 사과

공공아이핀 시스템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려 75만건이 부정 발급된 데 대해 정부가 10일 공식 사과했다

정부가 시스템 공격을 인지한 지 8일, 발표한 지 5일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공공아이핀 부정 발급으로 국민에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시스템 해킹 사실을 공개한 지난 5일에 대국민 사과를 하지 않은 데 대해 김석진 행자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범죄 전 마지막 점검회의 후 긴급하게 공개하느라 미처 (사과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사고와 같은 부정 발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공공아이핀 시스템과 관리·운영 모두에 허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외부 보안전문기관에 의뢰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안강화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또 보안전문업체에 맡겨 공공아이핀 시스템 구조·성능과 관리·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결과를 근거로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현정기자 기술

정부, '싱크홀' 예방에 총력

환경부는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를 막기 위해 다음 달부터 전국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는 지반침하 원인 중 하나인 20년 이상 된 전국 노후 하수관 4만㎞를 대상으로 내년까지 이어진다 또 올해는 1만2000㎞의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며 총 712억원이 투입된다

환경부는 하수관로 내부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거나 폐쇄회로(CC)TV를 장착한 소형 장비를 진입시켜 관로의 부식과 파손 등 전반적인 상태와 결함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공동(空洞)이나 지반침하가 예상되는 구간은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와 내시경·시추공 조사를 통해 보수계획을 수립·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지반침하 대응 노후 관로 정밀조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방법을 표준화하고 복구방법 등을 규정한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황재용기자

오늘도 꽃샘추위 쌀쌀 서쌍쓰는 꽃샘추위가 전국에서 기승을 부린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모을 꼼꼼 싸맨 시민들이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온이 다소 올라가지만 오늘도 꽃샘추위는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 지급 대상"

중혼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전모(여)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967년부터 나모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2013년 10월 나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룬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씨의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에 준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4월 '건보료 폭탄' 분할납부로 해결

복지부, 개선방안 검토 중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이 끝나 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뒤인 4월에 건보료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전년도 월급의 인상·인하분을 반영해 추가 부담금 혹은 반환금을 산정한 후 이를 4월분 보험료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된 회사의 직원은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작년 4월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62%가 평균 25만3000원(50%는 회사 부담)을 추가로 부담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납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산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월 균등 분할방식으로 보험료를 나눠 내는 것이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건보료 연말정산 폭탄 논란을 잠재우고자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년 4월 한꺼번에 건보료를 정산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올해 하반기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월급이 늘거나 줄면 그때마다 매달 건보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가 그것이다 또 3·5·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건보료 정산 시기마다 '건보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건보료 인상 시기와 건보료 정산 시기를 맞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황재용기자